

碩士學位請求論文

濟州道 國民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研究

－ 統一教育의 새方向 摸索과 關聯하여 －

指導教授 高 性 俊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金 姬

1993年 8月

濟州道 國民學生들의 統一意識에 관한 研究

— 統一教育의 새方向 摸索과 關聯하여 —

指導教授 高 性 俊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1993年 6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國民倫理教育專攻

提出者 金 姬



金 姬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1993年 7月 日

審査委員長

審査委員

審査委員

강 근형
高 性 俊
金 恒 元



〈 초 록 〉

제주도 국민학생들의 통일의식에 관한 연구

— 통일교육의 새방향 모색과 관련하여 —

김 회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국민윤리교육 전공

지도교수 고 성 준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에게 맡겨진 역사적 사명이지만, 그것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다할때라야 우리 곁에 그 모습을 드러낼 것이다.

사회주의권의 대변력과 제한적이긴 하지만 시작된 북한의 변화, 그리고 극적인 독일의 통일은 통일의 염원을 안고 노력하는 우리들에게 통일문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의 흐름은 통일은 단순한 국가통합보다는 민족 구성원의 삶의 무대를 하나로 하는 민족통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보다 현실적임을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일문제 인식의 전환과 더불어 그동안 민족통합과는 거리가 먼, 반공·반북한 교육이 주류를 이루었던 우리의 통일교육에도 일대전환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40년이라는 오랜 단절속에서 축적된 동족간의 반목·불신·적대관계, 민족 이질화 등으로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민족공동체로서의 의식이 손상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있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우리의 통일교육도 한 몫 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다행히 민족공동체가 하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민족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일의 원동력으로 삼아

우리 민족 본래의 참 모습인 동시에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한 민족공동체를 회복·발전시켜 민족의 번영을 꾀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민족의식과 통일의 의지는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끊임없이 북돋아 주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의 통일교육이 민족통일을 위한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내용과 방법에 있어 과감한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서독이 일관된 자세로 실시해 온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통일교육이 독일통일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상기해 볼 때, 민족 공동체 형성을 위한 통일교육의 새 방향 모색은 통일의 디딤돌이 될 것이다.



目 次

抄 錄

I. 序 論	1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1
2. 研究의 方法	4
3. 研究의 制限點	9
II. 統一意識 調查分析	11
1. 統一觀	11
2. 北韓觀	46
3. 國家觀	71
III. 統一教育의 새方向 摸索	83
1. 統一教育의 再定立 必要性	83
2. 統一教育의 問題點	85
3. 統一教育의 새方向	89
IV. 結 論	95
參考文獻	99
Summary	105

表 目 次

〈表 1〉 통일외식 영역 및 내용	4
〈表 2〉 조사도구의 구성.....	6
〈表 3〉 질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8
〈表 4〉 배경변인별 자료처리 인원	9
〈表 5〉 통일에 대한 관심도	13
〈表 6-1〉 한겨레에 대한 인식	16
〈表 6-2〉 한겨레에 대한 인식	18
〈表 7〉 남북분단의 원인 인식	21
〈表 8〉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24
〈表 9〉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26
〈表 10〉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인식	29
〈表 11〉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인지도	32
〈表 12〉 통일의 주체에 대한 인식	34
〈表 13〉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 인식	37
〈表 14〉 통일의 장애요인 인식	39
〈表 15〉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42
〈表 16〉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에 대한 인식	44
〈表 17〉 통일독일에 대한 인식	47
〈表 18〉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도	49
〈表 19〉 북한동포에 대한 인식	51
〈表 20〉 남북한 생활수준 비교 인식	54
〈表 21〉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인식	56
〈表 22〉 서울올림픽에 대한 인식	59
〈表 23〉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한 인식	61

〈表24-1〉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	64
〈表24-2〉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	67
〈表 25〉 북한에 대한 지식원	68
〈表 26〉 북한관련 교육자료 실태	70
〈表 27〉 국가의 자유선택 가능시 태도	73
〈表 28〉 제2의 6·25재발시 태도	76
〈表 29〉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79
〈表 30〉 우리 나라의 당면 문제점 인식	81
〈表 31〉 제4·5차 교육과정 도덕과 교과서 통일안보영역에서의 행동특성별 분석	87



그 립 목 차

〈그림 1〉 통일에 대한 관심도	14
〈그림 2-1〉 한겨레에 대한 인식	17
〈그림 2-2〉 한겨레에 대한 인식	19
〈그림 3〉 남북분단의 원인 인식	22
〈그림 4〉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25
〈그림 5〉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27
〈그림 6〉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인식	30
〈그림 7〉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인지도	33
〈그림 8〉 통일의 주체에 대한 인식	35
〈그림 9〉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인식	38
〈그림 10〉 통일의 장애요인 인식	40
〈그림 11〉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43
〈그림 12〉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에 대한 인식	45
〈그림 13〉 통일독일에 대한 인식	48
〈그림 14〉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도	50
〈그림 15〉 북한동포에 대한 인식	52
〈그림 16〉 남북한 생활수준 비교 인식	55
〈그림 17〉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인식	57
〈그림 18〉 서울올림픽에 대한 인식	60
〈그림 19〉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한 인식	60
〈그림20-1〉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1순위)	65
〈그림20-2〉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2순위)	65
〈그림20-3〉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종합)	66

<그림 21> 북한에 대한 지식원	69
<그림 22> 북한관련 교육자료 실태	71
<그림 23> 국가의 자유선택 가능시 태도	74
<그림 24> 제2의6·25재발시 태도.....	77
<그림 25>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80
<그림 26> 우리 나라의 당면 문제점 인식	80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및 目的

분단 4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한반도에 하나의 배달민족이 존재하고 있다는데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따라서 통일은 분단 이후 우리 민족 최대의 관심사이며 과제이자 사명일 수밖에 없다. 하지만 ‘우리 민족의 자존·번영·자유를 위한 평화 통일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이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능동적으로 주체적인 역할을 다함으로써 성취하게 되는 역사적 과업’이다.¹⁾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밖으로 소련·동구에서의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와 그로 인한 세계질서의 개편, 역사적인 동서독의 조기통일, 미·일과 북한의 접근 등의 새로운 국제정세 변화와 안으로 분단된 나라의 통일을 어서 이루어 민족의 자존과 번영을 이루어야겠다는 높은 민족적 자각과 열정속에 그동안 끈질기게 달려온 통일노력이 가져온 남북한 UN동시가입(1991)과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1992) 탄생으로, 각계각층에서의 통일에 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는 등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이는 지극히 바람직하며 당연한 일일 것이다.

평화와 화해의 새 길을 찾는 국제관계의 흐름으로 통일을 논의함에 이제는 과거와 달리 냉전과 대결의 논리에서 벗어난 민족화합을 위한 통일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또한 통일문제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 그 접근방식에 있어서도 대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즉, 통일이 반드시 이루어야하는 민족적 과제이고 민족통합만이 진정한 통일을 가져다 준다고 할 때 통일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족공동체 의식의 형성에서 출발해

1) 국토통일원(1987), 「민주통일론」, p. 73.

야 할 것이다.²⁾

통일문제가 우리민족자체의 문제일뿐더러 주변제국의 이해와 밀착되어 있어 한반도만큼 외적 환경의 변화가 그 내부질서와 구조에 중대하고도 즉각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분단이후 그어느때보다도 통일환경이 빠르게 바람직한 방향으로 엮어지면서 이제는 그 무엇보다도 내적요인의 변화가 통일국가로 가는 지름길이 되어 민족자체의 요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분단초기만 하더라도 민족의식의 동질성에는 남북한간에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6.25라는 동족상잔의 대가를 치른 뒤로는 반공이 가장 강력한 국민적 합의를 얻은 국가목표가 되어 초헌법적인 권위를 누리면서 남북간에 민족사회의 재결합을 어렵게 하였고 적대감만 고조시켜 왔다. 게다가 분단이 장기화되면서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 걸친 광범위한 이질화의 정도는 이제 민족의 공동유산인 일상 언어생활에까지 파고든 상태이다. 이러한 남북이질화의 심화상태가 방치될 경우 실령 어떤 정치적 계기가 결정적으로 작용하여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같은 민족으로서 공동체 의식을 발휘한다는 것이 어렵고 진정한 민족통합을 이루어 '새로운 한국건설'을 이루자는 것이 자칫 환상으로 그칠 수도 있다.

이에 민족통합을 위한 새통일의 작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는 무엇보다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은 일차적으로 정치·경제체제와 사회구조의 통합이지만 체제와 구조의 통합은 의식과 가치관의 융합이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³⁾

반공을 중시하는 정치적 환경속에서 이제까지의 우리의 통일교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이용되었을 뿐 민족동질성 회복과 민족통합을 위한

-
- 2) 최인화(1991),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전개방향",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 (통일원), p.343.
 - 3) 김신일(1991), "통일로 가는 교육의 방향", 「새교육」(통권 435호, 한국교육신문사)

즉, 진정한 민족통일을 위한 교육은 할 수 없었다. 이러한 교육의 경과로 학생들의 이성적 판단이 성숙해갈수록 통일에 대한 신념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통일교육도 이데올로기와 분단이 안겨준 반공·안보 중심의 통일교육에서 탈피하여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통일을 앞당기고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의 목적은 통일에 대한 합리적 태도와 통일문제에 대한 적극적 참여기능을 배양하고 민족공동체 의식을 고양하여 통일을 앞당김과 동시에 통일 이후에 나타날 문물화체현상을 최소화하여 단순한 지리상의 통일이 아닌 정신문명의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한민족 공동체의 안녕과 번영을 모색하려는 것이다.⁴⁾ 이러한 통일교육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건국 이후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학교의 통일교육에 대한 재검토가 시급히 요청된다고 하겠다. 특히 인간의 태도·가치관의 육성은 연령이 어릴수록 효과적이므로 가변성이 많은 국민학교에서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일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이러한 제반현실들은 분단조국의 통일을 위한 주역세대가 되거나 장차 미래의 통일국가에 살게 될 국민학교 아동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에 관한 종합적인 조사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특히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에서 행해진 연구들은 대학생과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의미있다 할 것이다. 본연구에서는 통일의식의 내면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에 있는 국민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여 국민학교 일선현장에서 지금까지 행해온 아동들에 대한 통일교육의 성과와 아동들의 반응도를 측정함으로써 아동들에게 내재하는 의식의 실태 및 경향·특징등을 유출하여 문제점을 분석과약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민족통일교육의 전개방향에 대해 고찰해 봄으로써 학교통일교

4) 추병완(1992),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새교육」(통권 452호, 한국교육신문사), p. 172.

육을 개선하는 데 그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목적을 위한 연구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기술적 조사연구방법을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서 통일외식의 개념과 선행연구를 분석·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그리고 기술적 조사연구에 의해서는 질문지를 통하여 나타난 반응을 중심으로 도내 국민학교 6학년 아동들의 통일외식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상과 같은 연구방법에 대한 도구, 대상 및 표집, 자료처리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조사도구

본 연구목적을 위한 통일외식조사도구는 통일외식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거나 연구자의 판단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질문지 문항을 응답자의 배경에 관한 문항(3개 문항)과 통일외식구조에 관한 내용 문항(27개 문항)으로 크게 구분하였다.

제주도 국민학생들의 통일외식구조를 조사하기 위한 질문지 문항은 <표1>과 같은 순서에 의해 제작하였다. 구성된 통일외식의 내용은 3개 영역의 26개 개념이다.

<表 1> 통일외식 영역 및 내용

영역	개념
통일관	통일에 대한 관심도, 한겨레에 대한 인식, 남북분단의 원인, 통일의 가능성, 통일의 당위성,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 통일의 주체, 통일여건 조성, 통일의 장애요인, 주한미군,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 통일 독일
북한관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도, 북한동포에 대한 인식, 남북한 생활수준 비교, 남북한 군사력, 서울올림픽, 북한의 공식명칭,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에 대한 지식원, 북한 관련 교육자료의 실태
국가관	국가의 자유선택 가능시 태도, 제2의 6·25재발시 태도, 민주주의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우리나라의 당면문제점

통일의식구조에 관한 내용문항은 3개 영역 총 27개 문항으로 작성하였으며 예비 조사를 거쳐 수정·보완하였다. 27개 문항중 유목적 질문지 26개 질문항목에 대해서는 몇개의 응답범위를 제시하여 응답자가 자기의견에 따라 택하도록 하였고 나머지 1개 질문항목(24번)은 자유반응적 질문지로서 피조사자가 직접 질문지에 기록하도록 하였다.

조사 내용에 있어서는 피조사자들이 국민학교 아동이므로 국민학교 도덕과 4~6학년 교과서 및 교사용 지도서의 내용범위안에서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아동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묻는 것은 가급적 피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무엇을 느끼고 있나'하는 인식에 관해 묻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며, 예견되는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판단의 질문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 내용을 보면 <표2>와 같다.

2) 연구대상 및 표집

본 연구의 대상은 통일교육을 정치교육의 일환으로 보고⁵⁾ 정치교육의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아동후기에⁶⁾ 해당하는 제주도내 국민학교 6학년 아동으로 하였

-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 5) 우리나라에서는 해방후부터 지금까지 정치교육의 일종이라 할 수 있는 민주시민교육, 반공교육, 새마을 교육, 민방위교육, 통일안보교육, 국민윤리교육, 국민정신교육 등 다양한 명칭의 교육들이 이뤄져 왔는데, 교육적 차원에서 정치교육을 볼 때, 정치교육이란 자라는 어린세대들에게 국가성원으로서 국가의 존속과 발전에 기여하면서 폐쇄된 공산주의보다 개방적이고 민주적인 자유민주체제에 일체감을 느끼고 국가체제의 정당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와 지식 등 신념을 확산시켜 국가의 존속발전을 위협하는 어떤 세력과도 맞서 이길 수 있는 태도를 지니게 하는 교육이다.

최성환(1984), "아동기의 통일안보교육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 영남대학교육대학원), p. 14 참조.

- 6) 통일교육의 중요성과 관련하여 아동기의 통일교육이 차지하는 교육적 시기의 중요성을 정치교육의 시기와 관련지어 보면, Platon이나 Rousseau는 훌륭한 시민을 배양하는데 있어 정치교육 초창기에 어린이들이 겪게되는 경험에 대해 관심을 기울

〈表 2〉 조사 도구의 구성

통일의식 영역	질문 내용 (개념)	답지에 내포된 통일 의식	문항 번호	문항수		
통일관	통일에 대한 관심도	통일을 주제로 한 가정에서의 대화 정도	4	14		
	한겨레에 대한 인식	한겨레라는 말의 의미 인식 한겨레에 대한 인식	5 6			
	남북분단의 원인	남북분단의 원인에 대한 인식	7			
	통일의 가능성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8			
	통일의 당위성	통일의 당위성 인식	9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인식	10			
	우리나라의 통일 방안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	11			
	통일의 주체	통일의 주체에 대한 인식	12			
	통일 여건 조성 문제	통일여건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 인식	13			
	통일의 장애요인	통일의 장애요인에 대한 인식	14			
	주한 미군에 대한 인식	주한 미군에 대한 인식	15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에 대한 인식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에 대한 인식	16			
	통일 독일에 대한 인식	통일 독일을 바라보는 시각	17			
	북한관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도	북한사회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영역		18	9
		북한 동포에 대한 인식	북한 어린이 만났을 때 태도 인식		19	
		남북한 생활수준 비교 인식	남북한 생활수준 비교 의식		20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인식	남북한 군사력 비교의식		21	
서울 올림픽 개최에 대한 인식		서울 올림픽과 북한에 대한 인식	22			
북한의 공식 명칭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한 인식	23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		북한 사회에 대해 연상되는 영역	24			
북한에 대한 지식원		북한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곳	25			
북한관련교육 자료의 실태 여부		북한관련 교육자료의 학교비치 여부	26			
국가관	국가의 자유선택 가능시 태도	국가의 자유선택 가능시 태도 여부	27	4		
	민주주의 비상시의 태도	제2의 6·25재발시 태도 여부	28			
	민주주의 우월성 인식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도	29			
	우리 나라의 당면 문제 인식	우리 나라의 당면 문제점에 대한 인식	30			

다. 제주도 국민학생의 모집단을 현실적으로 대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시·읍·면 등의 지역별로 고르게 선정되도록 하였는데, 제주시 지역에 소재한 국민학교 2개교, 서귀포시 지역에 소재한 국민학교 3개교, 읍지역에 소재한 국민학교 7개교, 면지역에 소재한 국민학교 6개교, 총 18개교를 무작위추출, 표집학교로 선정하였다. 질문지는 1993년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해당학교 담임교사의 협조를 얻어 실시·회수하였다. 회수율을 보면 선정된 학교의 재학생 6학년 1학급씩을 무작위로 선정하여 선정된 학급아동수 만큼 질문지를 배부, 총 686부를 배부하여 실시한 후 674부를 회수하여 98.25%의 회수율을 보였다. 질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은 <표3>과 같다.

질문지의 응답결과를 통계처리하기 위하여 회수된 질문지를 검토·응답이 누락되거나 한문항에 2개 이상의 응답을 한 질문지 22부를 통계에서 제외시켜 실제 연구대상인 인원은 652명이다. 이를 배경변인별로 보면 <표4>와 같다.

였고, Hess와 Torney는 정치적 학습의 경험은 고등학교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정치적 정보와 태도의 습득은 국민학교 시절에 급격히 발달하여 정치에 대한 효능과 행위가 점차 증가한다고 하였다. Easton과 Hess도 어린이들의 정치세계는 국민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도 상당히 형성되어 이 기간동안 가장 급격한 변화를 보이고, 9~13세에 이르는 후기 아동시절의 정치관은 새로운 성격을 가질때며 초기와 후기 사이에 일어나는 정치적인 인식의 변화는 그 내용이 정치교육에 대한 가장 중요한 시기라 할 수 있을 정도로 매우 지대한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위에서 고찰해본 바와 같이 아동기의 발달단계 구분에서 특히 아동후기(10~12세)에 속하는 국민학교 아동은 정치교육의 시기적으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다.

Platon, The Republic and J. J Rousseau, Emile 참조.

Robert D. Hess & Judith V. Torney(1967),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in Children" (Chicago : Aldine Publishing Company), p.26. 참조.

David Easton and Robert D. Hess(1962), "The child's Political World", Midwes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I, pp.231~232, pp.237~238. 참조.

〈表 3〉 질문지 배부 및 회수현황

()내는 백분율

지역	所在學教	배부 수	회수 수	제외 수	통계 수
시 (5개교)	서귀포시 S국교	43	41	.	41
	서귀포시 D국교	38	38	2	36
	서귀포시 T국교	37	33	1	32
	제주시 D국교	47	47	.	47
	제주시 D국교	45	45	.	45
	계	206	204(99.03)	3	201(97.57)
읍 (7개교)	대정읍 D국교	43	42	2	40
	남원읍 N국교	31	31	1	30
	성산읍 D국교	39	39	.	39
	애월읍 H국교	35	35	.	35
	구좌읍 S국교	36	35	1	34
	조천읍 S국교	36	36	3	33
	한림읍 H국교	41	40	1	39
	계	260	258(99.23)	8	250(96.15)
면 (6개교)	창천면 C국교	28	28	.	28
	표선면 P국교	40	40	3	37
	언평면 Y국교	42	38	4	34
	추자면 C국교	40	37	2	35
	한경면 K국교	35	34	1	33
	한경면 J국교	35	35	1	34
	계	220	212(99.36)	11	201(91.36)
	총 계	686	674(98.25)	22	652(95.04)

〈表 4〉 배경변인별 자료 처리 인원

배경변인	변인구성	변인크기	변인구성비(%)	계
1.성별	남	329	50.5	652
	여	323	49.5	
2.지역별	시	201	30.8	652
	읍	250	38.3	
	면	201	30.8	
3.직업별	농업	213	32.7	652
	상업·서비스업	159	24.4	
	어업	52	8.0	
	공무원(교사포함)	58	8.9	
	회사원	49	7.5	
	축산업	11	1.7	
	노동	73	11.2	
	기타	37	5.7	

3) 자료처리

모집된 자료는 제주대학교 전산실에서 각 배경변인별로 나누어 문항별 집계를 하고 이를 백분비(%)로 산출하였으며, 배경변인별 통일의식의 유의한 차를 비교하기 위하여 X^2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3. 제한점

그러나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제한점을 갖는다.

- 1) 제주도 전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조사과정에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제약과 여건때문에 제주도내 소재하는 시 2개 학교, 읍 7개 학교, 면 6개 학교의 아동들로 한정시켜 무작위 표집(random sampling) 방법에 의해 조사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2) 통일에 관한 인식과 관련하여 교과서 이외의 학습장면에서 배우게 되는 내용과 그 효과, 나아가 그 둘 사이의 상호작용을 밝히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의 대상인 아동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이 학교교육 특히 도덕 교과서 내용의 학습에 의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3) 아동들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에 있어 질문지만 사용하였기 때문에 질문지법이 갖는 한계를 무시할 수 없다.”



7) 질문지 잘못 꾸밀 경우 불성실한 반응 얻기 쉽다. 사실대로 반응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심층적인 자료 얻을 수 없다. 응답자의 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있다. 김종서(1980), 「교육연구의 방법」, (서울: 배영사), p.172.

II. 통일의식 조사분석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제주도내 국민학교 6학년 아동들의 통일의식을 조사해 봄으로써 현 통일교육에 관한 제반 문제점들을 유출하고 분석하여 이것을 토대로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설정을 모색하여 바람직한 통일교육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나아가 올바른 통일관의 확립과 의식의 강화를 꾀하고자 하는데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일의식의 영역별분석 및 배경변인에 따라 성별, 지역별, 직업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밝히고자 한다.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순서는 국민학교 6학년 아동들의 통일의식의 실태를 이상에서 논의된 통일의식의 분류를 바탕으로 통일의 직접적인 의식인 통일관과 통일의식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관·국가관 등을 문항별로 분석하되 첫째, 각문항들에 대한 전체 응답자의 반응경향 및 반응분포를 제시하고 둘째, 각문항들에 대한 반응결과를 차례로 분석하면서 논의하며 셋째, 전체 및 배경 변인별 각 집단간에 두드러진 차이가 있거나 각 문항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반응결과를 종합 제시하였다. 모든 문항별 분석과 영역별 통일의식의 종합분석은 배경변인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백분비(%)와 X^2 검증을 하였다.

1. 통일관

통일에 대한 아동들의 의식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14개 문항이 설정되었는데, 크게 통일에의 관심인식, 통일방안과 통일주체에 대한 인식, 통일여건조성과 통일논의 상황인식 등으로 분류하여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통일에의 관심 인식

통일에의 관심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에 대한 관심도, 한 겨레에 대한 인식, 남북분단의 원인, 통일의 가능성, 통일에 대한 염원도, 통일의 당위성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1) 통일에 대한 관심도

가정에서 부모와의 대화를 통한 통일교육의 기회가 의도적으로 빈번히 이루어져 가정·학교·사회교육이 밀접한 연계성을 가질 때 교육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서 아동들의 통일에 대한 관심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평소 통일에 대한 이야기를 가족들과 어느정도 나누고 있습니까?” (4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자주 나눈다 ②어쩌다 간혹 나눈다 ③전혀 나누지 않는다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결과 <표5>에 나타난 것처럼 ‘어쩌다 간혹 나눈다’ 62.4%, ‘전혀 나누지 않는다’ 33.1%, ‘자주 나눈다’ 4.5%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66.9%의 어린이가 가정에서 통일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질문내용의 선행연구 최성환의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을 중심으로 조사한 ‘아동기의 통일안보에 관한 연구’⁸⁾에서는 ‘58.42%’의 아동만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면 그때보다 10년후인 지금의 아동들이 통일을 주제로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것(66.9%)으로 나타났으나, 결코 만족할 정도의 반응은 아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응답한 아동(66.9%) 중 대화를 자주 나누는 경우는 단지 4.5%밖에 안되며, 전혀 나누지 않는 경우는 그보다 훨씬 큰 33.1%나 되어 아동들이 그들 스스로 갖고 있는 통일에 대한 염원에 비해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극히 적거나 아니면 통일에 대한 부모들의 관심이 적다는 것을 보여주어 아직까지도 통일교육은 학교에서만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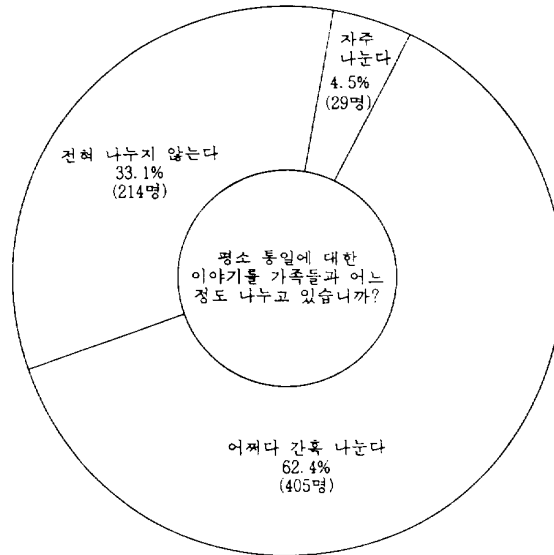
8) 崔聖煥의 조사(앞의 논문)에서 ‘통일과 관련된 대화에’ 대해 많이 한다(7.22%), 하고 있는 편이다(20.72%), 약간 정도이다(30.0%), 별로 하지 않는다(27.94%), 전혀 해본 적이 없다(14.12%)로 나타났다.

〈表 5〉 통일에 대한 관심도

(** P<0.01)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체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전	체	100.0% (649)				4.5 (29)	62.4 (405)	33.1 (215)
성 별	남	50.2 (326)	10.12	2	** 0.0063	4.3 (14)	56.7 (185)	39.0 (127)
	여	49.8 (323)				4.6 (15)	68.1 (220)	27.2 (88)
지 역 별	시	30.8 (200)	4.20	4	0.3801	5.5 (11)	66.0 (132)	28.5 (57)
	읍	38.4 (249)				4.8 (12)	59.4 (148)	35.7 (89)
	면	30.8 (200)				3.0 (6)	62.5 (125)	34.5 (69)
직 업 별	농업	32.8 (213)	13.85	14	0.4606	3.3 (7)	60.6 (129)	36.2 (77)
	상업·서비스업	24.3 (158)				3.2 (5)	65.8 (104)	31.0 (49)
	어업	8.0 (52)				5.8 (3)	59.6 (31)	34.6 (18)
	공무원	8.9 (58)				3.4 (2)	70.7 (41)	25.9 (15)
	회사원	7.2 (47)				10.6 (5)	61.7 (29)	27.7 (13)
	축산업	1.7 (11)					54.5 (6)	45.5 (5)
	노동	11.2 (73)				4.1 (3)	61.6 (45)	34.2 (25)
	기타	5.7 (37)				10.8 (4)	54.1 (20)	35.1 (13)

〈그림 1〉 통일에 대한 관심도



〈표5〉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39.0)가 여자(27.2)보다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과 부모의 직업별로는 시(71.5)와 공무원(74.1), 회사원(72.3)이 대화를 나누는 쪽으로 높은 반응을 나타낸 반면 읍(35.7)과 농업(36.2)이 대화를 '전혀 나누지 않는다'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지역별·직업별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는다.

(2) 한겨레에 대한 인식

한겨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두 개의 질문 중 하나는 통일민족인 북한동포에 대해 어느 정도 한겨레라고 의식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남북한은 모두 한겨레이다’라는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당연히 한겨레이다 ② 과거에는 한겨레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③ 잘 모르겠

다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6-1>에 나타난 것처럼 '당연히 한겨레이다' 73.1%, '과거에는 한겨레였으나 지금은 아니다' 14.9%, '잘 모르겠다' 12.9%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73.1%라는 상당수의 아동들이 한겨레라는 인식에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26.9%의 아동들은 부정적 또는 회의적 반응을 보였다. 한겨레에 대한 인식정도는 아직까지는 문제될 정도는 아니나, 앞으로 분단상태가 길어질 경우 위협스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된다.

<표6-1>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과 지역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남자와 시지역이 한겨레라는 인식에 약간 높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공무원(82.2)이 한겨레라는 인식에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반면, 노동(63.0)과 어업(63.5)이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유의한 차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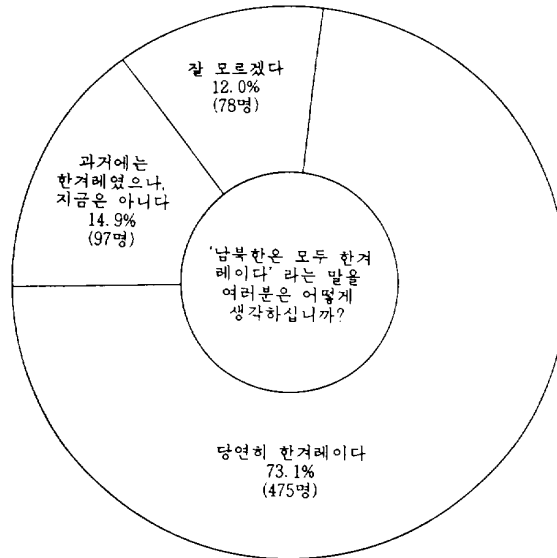
한겨레에 대한 인식을 묻는 두번째의 질문은, 우리가 같은 핏줄이면서도 오랫동안 만날 수 없었던 북한과 우리의 제 1 우방국으로 인식되어온 미국 중 어느쪽에 더 우호적인 감정적 성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북한과 미국이 운동경기를 한다면 누구를 응원하겠습니까?" (6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북한 ②미국 ③둘 다 똑같이 응원하겠다 ④둘 다 응원하지 않겠다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6-2>에 나타난 것처럼 북한 52.5%, 둘 다 똑같이 응원하겠다 27.7%, 미국 10.8%순으로 응답하였다. 미국이 현재 우리의 우방이라고는 하나 민족이라는 차원에서선 당연히 북한을 응원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표6-1>에서 통일 민족에 대해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6-2>에서 실지로 북한선수가 제3국 선수와 운동경기를 할 경우 명쾌하게 북한선수를 응원하겠다고 답한 어린이는 적었다. 이는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민족통합의 측면이 소홀히 된 반공교육으로서의 성격이 강한 교육이었음을 말해준다.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선

〈表 6-1〉 한겨레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전체	체	650 (100.0)				73.1 (475)	14.9 (97)	12.0 (78)
성별	남	50.5 (328)	3.55	2	0.1697	74.1 (243)	16.2 (53)	5.8 (32)
	여	49.5 (322)				72.0 (232)	13.7 (44)	14.3 (46)
지역별	시	30.9 (201)	5.18	4	0.2692	77.1 (155)	14.9 (30)	8.0 (16)
	읍	38.3 (249)				70.3 (175)	16.1 (40)	13.7 (34)
	면	30.8 (200)				72.5 (145)	13.5 (27)	14.0 (28)
직업별	농업	32.8 (213)	21.82	4	0.0824	75.6 (161)	12.7 (27)	11.7 (25)
	상업·서비스업	24.5 (158)				73.4 (116)	15.2 (24)	11.4 (18)
	어업	8.0 (52)				63.5 (33)	25.0 (13)	11.5 (6)
	공무원	8.9 (58)				82.8 (48)	15.5 (9)	1.7 (1)
	회사원	7.5 (49)				73.5 (36)	14.3 (7)	12.2 (6)
	축산업	1.7 (11)				54.5 (6)	18.2 (2)	27.3 (3)
	노동	11.2 (73)				63.0 (46)	15.1 (11)	21.9 (16)
	기타	5.5 (36)				80.6 (29)	11.1 (4)	8.3 (3)

〈그림 2-1〉 한겨레에 대한 인식



행연구된 김용승의 조사⁹⁾에서는 전체응답자의 90%가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답하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민족에 대한 정체성이 훨씬 미약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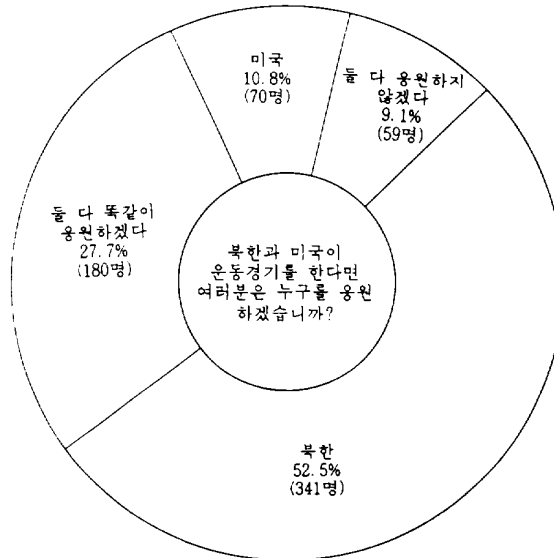
〈표6-2〉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배경변인별 각 집단 간에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성별과 지역별에 따라서는 여자(53.6)가 남자(51.4)보다, 시(58.7)가 면(49.3)보다 '북한'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고,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회사원(61.2)과 공무원(55.2)이 '북한'에 높은 반응을 나타낸 반면 어업(46.2)과 상업·서비스업(49.1)이 낮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9) 김용승(1990), "대학생의 통일의식과 통일문제인식의 세방향", 「대학생통일논문집」 제9권, (통일원), p. 96.

〈表 6-2〉 한겨레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전	계	100.0 (650)				52.5 (341)	10.8 (70)	27.7 (180)	9.1 (59)
성 별	남	50.3 (327)	7.16	3	0.0670	51.4 (168)	13.8 (45)	27.2 (89)	7.6 (25)
	여	49.7 (323)				53.6 (173)	7.7 (25)	28.2 (91)	10.5 (34)
지 역 별	시	30.9 (201)	6.84	6	0.3360	56.7 (118)	7.5 (15)	24.9 (50)	9.0 (18)
	읍	38.2 (248)				50.0 (124)	13.3 (33)	27.6 (69)	8.9 (22)
	면	30.9 (201)				49.3 (99)	10.9 (22)	30.3 (61)	9.5 (19)
직 업 별	농업	32.5 (211)	18.34	21	0.6272	52.6 (111)	9.0 (19)	28.9 (61)	9.5 (20)
	상업·서비스업	24.5 (159)				49.1 (78)	8.8 (14)	31.4 (50)	10.7 (17)
	어업	8.0 (52)				46.2 (24)	17.3 (9)	21.2 (11)	15.4 (8)
	공무원	8.9 (58)				55.2 (32)	13.8 (8)	24.1 (14)	6.9 (4)
	회사원	7.5 (49)				61.2 (30)	14.3 (7)	18.4 (9)	6.1 (3)
	축산업	1.7 (11)				63.6 (7)	18.2 (2)	9.1 (1)	9.1 (1)
	노동	11.2 (73)				53.4 (39)	8.2 (6)	31.5 (23)	6.8 (5)
	기타	5.7 (37)				54.1 (20)	13.5 (5)	29.7 (11)	2.7 (1)

〈그림 2-2〉 한겨레에 대한 인식



(3) 남북분단의 원인 인식

한반도는 그 지정학적인 조건때문에 역사적으로 언제나 이해관계국들의 세력각축에 말려들어 희생을 강요당해 왔고 이는 마침내 분단이라는 비극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이처럼 한민족의 분단은 강대국 정치의 횡포의 결과로 말미암은 것이다. 제주도 국민학교 6학년 아동들은 조국의 허리가 잘려지고 겨레가 갈라져야 했던 분단의 원인을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 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원인이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7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한국지도자의 책임 ② 민족내부의 분열 ③ 미국의 간섭 ④ 미국·소련의 욕심 ⑤ 북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7>에 나타난 것처럼 ‘북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 64.2%, ‘미

국·소련의 욕심' 22.0%, '민족내부의 분열' 7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아동들의 반응경향은 아동들이 남북분단의 원인을 해방후 미·소 관계에 의한 외적측면보다 한민족 내부의 갈등 및 내적측면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음을 보여주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북한 김일성에 더 큰 분단의 원인을 돌리고 있는 것은 특이하다. 분명 한반도의 분단은 미·소간의 침예한 대립으로 인한 냉전상황이라는 외적요인과 남북한 내부의 분열이라는 내적요인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 측면에 대한 균형적인 고려가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의 분단은 미·소에 의한 국제형 분단으로 더 큰 책임과 원인은 밖에 있다. 최근 외국의 학자들 가운데는 분단의 원인으로 한민족의 내부적 요인을 강조하는 이들도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반도 분단에 대한 강대국의 책임을 회색시키려는 것 같다. 이러한 그들의 속셈에 쉽게 넘어가서는 결코 안된다.

이와 유사한 질문내용의 선행연구 임병춘의 조사¹⁰⁾에서는 남북분단의 원인으로 해방후 미·소관계에 기인하는 외적측면을 한민족 내부의 갈등 및 대립으로 인한 내적측면보다 더 큰 비중을 두고 있어 본조사결과와 좋은 대조를 보여주고 있다.

<표7>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과 지역별에 따라서는 각각 $P < 0.05$ 와 $P < 0.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남자(27.0)가 여자(16.9)보다, 읍(28.4)이 면(18.9)·시(17.4)보다 남북분단의 원인을 미·소에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기타 직업(31.4)과 어업(25.5)·농업(23.7)이 남북분단의 원인이 미·소에 있다고 높게 반응한 반면 회사원(12.2)과 노동(19.2)이 낮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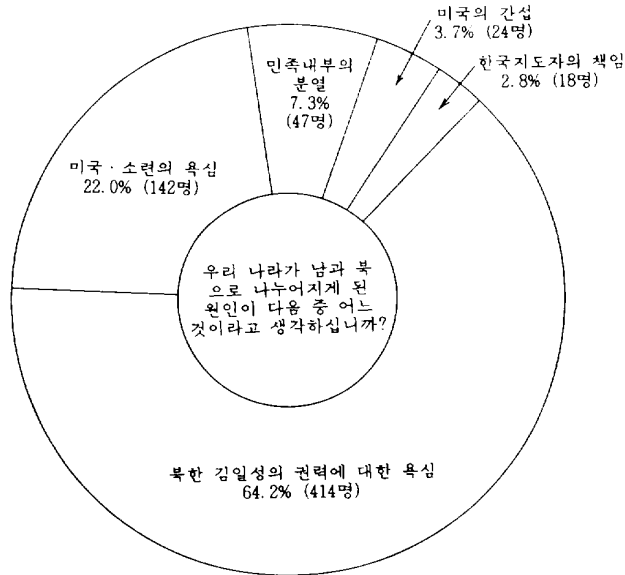
10) 任炳春의 조사(전환기 통일외식과 통일문제 인식의 새방향, 대학생 통일논문집, 1991, p.207.)에서 '남북분단 원인'에 한국 지도자의 책임(6.6%), 민족내부의 분열(24.0%), 미제국주의의 침탈(13.3%), 미·소강대국의 이해관계(52.8%), 북한 김일성의 정권욕(3.3%)로 나타났다.

〈表 7〉 남북분단의 원인 인식

(* P<0.05, *** P<0.005)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0.0 (645)				2.8 (18)	7.3 (47)	3.7 (24)	22.0 (142)	64.2 (414)
성별	남	50.5 (326)	11.30	4	* 0.0234	3.1 (10)	5.6 (19)	3.1 (10)	27.0 (88)	61.0 (199)
	여	49.5 (319)				2.5 (8)	8.8 (28)	4.4 (14)	16.9 (54)	67.4 (215)
지역별	시	31.2 (201)	25.58	8	*** 0.0012	0.5 (1)	8.0 (16)	4.5 (9)	17.4 (35)	69.7 (140)
	읍	37.7 (243)				1.6 (4)	6.2 (15)	4.1 (10)	26.4 (69)	59.7 (145)
	면	31.2 (201)				6.5 (13)	8.0 (16)	2.5 (5)	18.9 (38)	64.2 (129)
직업별	농업	32.7 (211)	30.37	28	0.3456	2.8 (6)	9.0 (19)	3.8 (8)	23.7 (50)	60.7 (128)
	상업·서비스업	24.3 (157)				1.3 (2)	2.5 (4)	3.2 (5)	20.4 (32)	72.6 (114)
	어업	7.9 (51)				5.9 (3)	5.9 (3)	2.0 (1)	25.5 (13)	60.8 (31)
	공무원	9.0 (5.8)				1.7 (1)	10.3 (6)	5.2 (3)	22.4 (13)	60.3 (35)
	회사원	7.6 (49)					10.2 (5)	4.1 (2)	12.2 (6)	73.5 (36)
	축산업	1.7 (11)				9.1 (1)	9.1 (1)		27.3 (3)	54.5 (6)
	노동	11.3 (73)				7 (2)	11.0 (8)	4.1 (3)	19.2 (14)	63.0 (46)
	기타	5.4 (35)				8.6 (3)	2.9 (1)	5.9 (2)	31.4 (15)	51.4 (18)

〈그림 3〉 남북분단의 원인 인식



(4)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통독의 과정을 보며 한민족이라면 누구나 남북통일을 기대해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통독의 현실은 우리 국민들의 통일의 의지에 희망을 불어넣어 주었다. 이와 관련하여 아동들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8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②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③ 조금 어려울 것이다 ④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⑤ 잘 모르겠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8>에 나타난 것처럼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49.4%,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34.1%, ‘조금 어려울 것이다’ 11.3%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묻는 질문에서 83.5%에 해당하는 많은 아동들이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반면 부정적, 비관적 반응을 보인 아동들도 16.6%나 되었는데, 이는 결코 무시해도 좋을 만큼의 작은 수치는 아니다. <표5>에서처럼 통일의 가능성에 있어 부정 또는 비관적인 아동의 비율보다 희망 또는 낙관적인 아동들의 비율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것은 급격한 국제정세 변화로 인한 통일의 가능성이 커지면서 통일에 대한 열망이 크게 고조됨과 동시에 아동들의 통일관도 대단히 희망적임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으로 선행 연구된 대학생을 대상으로한 임병춘¹¹⁾과 서창배¹²⁾의 조사에서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낙관적 견해를 보인 76.2%와 70.8%에 비하면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국민학교 아동들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에 있어 더 희망적임을 알 수 있다.

<표8>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여자(85.6)가 남자(81.3)보다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약간 더 희망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지역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면(86)이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가장 바람직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희망적 반응은 공무원(86.3)과 기타직업(86.1)이 다른 직업에 비해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다.

(5)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평소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9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②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③ 통일은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 ④ 통일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⑤ 생각해본 적이 없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11) 임병춘, 위의 논문, p.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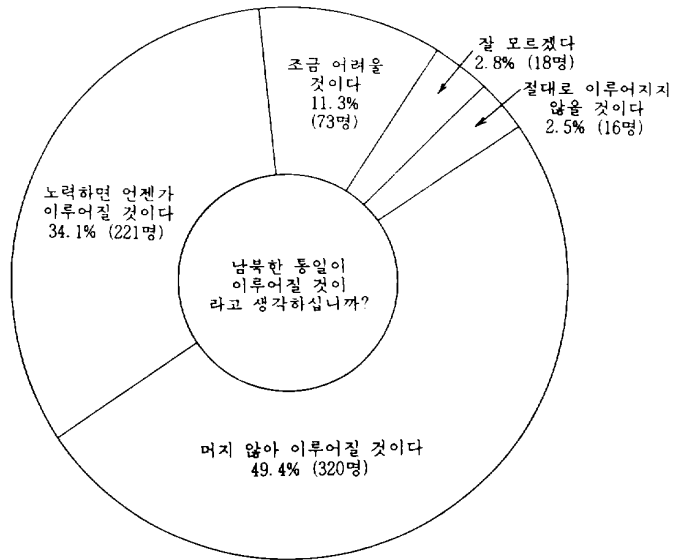
12) 徐暢培(1990), “사회·문화교류를 통한 한민족 공동체 형성방안 모색”, 국토통일원 「대학생통일논문집」 제9권, (통일원), p. 112.

〈表 8〉 통일에 대한 인식

(* P<0.05)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0.0 (648)				49.4 (320)	34.1 (221)	11.3 (73)	2.5 (16)	2.8 (18)
성별	남	50.5 (327)	13.21	4	* 0.0103	48.9 (160)	32.4 (106)	10.4 (34)	4.3 (14)	4.0 (13)
	여	49.5 (321)				49.8 (160)	35.8 (115)	12.1 (39)	0.6 (2)	1.6 (5)
지역별	시	30.7 (199)	7.11	8	0.5253	46.2 (92)	36.2 (72)	13.6 (27)	1.0 (2)	3.0 (6)
	읍	38.4 (249)				48.6 (121)	33.7 (84)	11.6 (29)	3.6 (9)	2.4 (6)
	면	30.9 (200)				53.5 (107)	32.5 (65)	8.5 (17)	2.5 (5)	3.0 (6)
직업별	농업	32.7 (212)	19.69	18	0.8754	48.1 (102)	33.5 (71)	8.5 (27)	2.5 (5)	3.0 (7)
	상업·서비스업	24.5 (159)				52.8 (84)	31.4 (50)	9.4 (15)	3.1 (5)	3.1 (5)
	어업	7.9 (51)				54.9 (28)	29.4 (15)	5.9 (3)	3.9 (2)	5.9 (3)
	공무원	9.0 (58)				46.6 (27)	39.7 (23)	12.1 (7)	1.7 (1)	
	회사원	7.4 (48)				43.8 (21)	39.6 (19)	12.5 (6)	2.1 (1)	2.1 (1)
	축산업	1.7 (11)				36.4 (4)	36.4 (4)	27.3 (3)		
	노동	11.3 (73)				45.2 (33)	39.7 (29)	12.3 (9)		2.7 (2)
	기타	5.6 (36)				58.3 (21)	27.8 (10)	8.3 (3)	5.6 (2)	

〈그림 4〉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인식



그 결과 <표9>에서 나타난 것처럼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69.3%,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17.7%, '통일은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 6.5%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통일에 관한 깊은 대화는 그다지 많이 나누지 않는 것으로 반응을 보였던 아동들은 통일의 당위성을 묻는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87.7%라는 상당수의 어린이가 긍정적으로 답함으로써 다행스러운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상으로 보아 아직까지는 대다수의 학생이 통일의 당위성을 강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가운데서 '통일은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 '생각해본 적이 없다'는 반응은 분단시대에 태어나 자란 세대들이 통일에 관한 의지보다 분단환경에의 적응이 체질화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 같아 앞으로 통일의 저해요소로 확산될까 두렵다.

이와 동일한 문항으로 성행연구원 임병춘¹³⁾의 조사에서는 95.6%가 '통일이 반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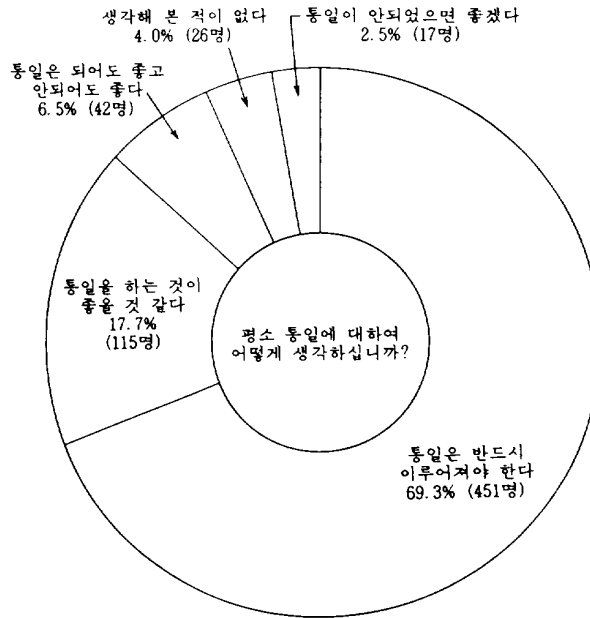
13) 임병춘, 앞의 논문, p.184.

〈表 9〉 통일외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 P<0.05)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0.0 (651)				69.3 (451)	17.7 (115)	6.5 (42)	2.6 (17)	4.0 (26)
성 별	남	50.4 (328)	13.20	4	* 0.0103	66.8 (219)	15.5 (51)	8.5 (28)	3.7 (12)	5.5 (18)
	여	49.6 (323)				71.8 (232)	19.8 (64)	4.3 (14)	1.5 (5)	2.5 (8)
지 역 별	시	30.9 (201)	3.24	8	0.9183	71.1 (143)	16.4 (33)	6.0 (12)	3.0 (6)	3.5 (7)
	읍	38.4 (250)				66.0 (165)	19.2 (48)	8.0 (20)	0.4 (6)	4.4 (11)
	면	30.7 (200)				71.5 (143)	17.0 (34)	5.0 (10)	2.5 (5)	4.0 (8)
직 업 별	농업	32.6 (212)	29.38	28	0.3936	72.2 (153)	16.0 (34)	6.6 (14)	1.4 (3)	3.8 (8)
	상업·서비스업	24.4 (159)				69.8 (111)	18.9 (30)	5.7 (9)	3.1 (5)	2.5 (4)
	어업	8.0 (52)				57.7 (30)	23.1 (12)	13.5 (7)		5.8 (3)
	공무원	8.9 (58)				69.0 (40)	19.0 (11)	8.6 (5)	3.4 (2)	
	회사원	7.5 (49)				75.5 (37)	10.2 (5)	2.0 (1)	2.0 (1)	10.2 (5)
	축산업	1.7 (11)				72.7 (8)	18.2 (2)		9.1 (1)	
	노동	11.2 (73)				64.4 (47)	20.5 (15)	5.5 (4)	0.5 (1)	4.1 (3)
기타	5.7 (37)	67.6 (25)	16.2 (6)	5.4 (2)	2.7 (1)	8.1 (3)				

〈그림 5〉 통일의 당위성에 대한 인식



시 이루어져야 한다' 또는 '통일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고 응답하여 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통일에 대한 당위성 인식이 대학생들보다 낮음을 알 수 있다.

〈표9〉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있는 차를 보이고 있는데 여자(91.6)가 남자(82.3)보다 통일의 당위성을 크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는 없으나 비슷하게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지역별에 따라서는 상업·서비스업(88.7), 농업(88.2)·공무원(88.0)이 통일의 당위성에 높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반면 어업(80.8)은 낮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의한 차는 없다.

(6)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인식

통일에 대한 인식은 통일에 거는 사람들의 기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왜 통일은 이루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0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이산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② 한민족이기 때문에 ③ 우리 민족이 더 잘살기 위하여 ④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⑤ 기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10>에 나타난 것처럼 통일의 이유로 ‘한민족이기 때문에’에 39.7%로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으로 ‘이산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30.7%,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13.0%, ‘우리 민족이 더 잘살기 위하여’ 9.9% 순으로 응답하였다.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로 ‘한민족이기 때문에’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한 것은 아동들이 다행하게도 아직까지 다른 민족과는 달리 우리 민족은 언어와 핏줄을 하나로 하는 단일 민족으로 독자적인 고유의 민족문화를 발전시켜 온 한민족이라는 동족감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문항으로 선행 연구된 최성환의 조사¹⁴⁾에서는 77.94%가 ‘우리는 한민족이므로’라는 답항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으며, 임병춘의 조사¹⁵⁾에서는 ‘민족의 동질성회복(43.1)’과 ‘민족의 번영과 발전(41.2)’에 많은 응답을 하였다.

<表10>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 않다. 지역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면(44.5)이 타지역에 비해 통일의 이유로 ‘한민족이기 때문에’에 약간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직업별에 따라서는 통일의 이유로 ‘한민족이기 때문에’에 기타직업(56.8)과 공무원(46.6)이 가장 높은 반응을 보인 반면, 노동(26.4)이 가장 낮은 반응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는 없다.

14) 최성환, 앞의 논문, pp. 61~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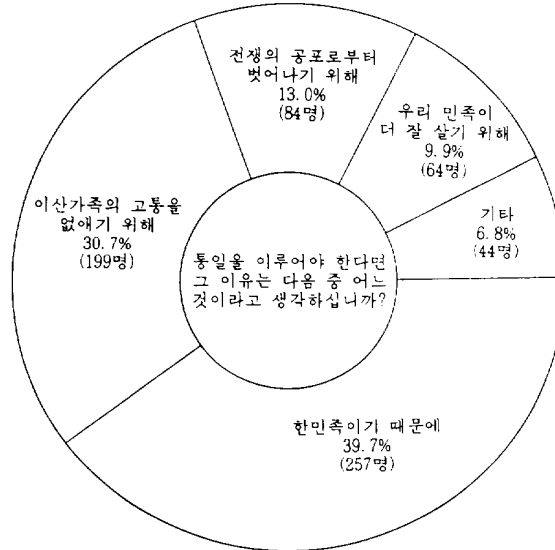
15) 임병춘, 앞의 논문, p. 194.

〈表 10〉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인식

(* P<0.05)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0.0 (648)				30.7 (199)	39.7 (257)	9.9 (64)	13.0 (84)	6.8 (44)
성 별	남	50.3 (326)	1.93	4	0.7483	29.4 (96)	40.5 (132)	11.0 (36)	12.0 (39)	7.1 (23)
	여	49.7 (322)				32.0 (103)	38.8 (125)	8.7 (28)	14.0 (45)	6.5 (21)
지 역 별	시	30.9 (200)	17.94	8	* 0.0217	32.5 (65)	38.5 (77)	13.0 (26)	10.5 (21)	5.5 (11)
	읍	38.3 (248)				33.9 (84)	36.7 (91)	5.2 (13)	15.7 (39)	8.5 (21)
	면	30.9 (200)				25.0 (50)	44.5 (89)	12.5 (25)	12.0 (24)	6.0 (12)
직 업 별	농업	32.9 (213)	26.79	28	0.5294	27.2 (58)	29.4 (84)	10.3 (22)	13.6 (29)	9.4 (20)
	상업·서비스업	24.1 (156)				32.7 (51)	38.5 (60)	9.6 (15)	13.5 (21)	5.8 (9)
	어업	8.0 (52)				36.5 (19)	40.4 (21)	9.6 (5)	9.6 (5)	3.8 (2)
	공무원	9.0 (58)				29.3 (17)	46.6 (27)	8.6 (5)	10.3 (6)	5.2 (3)
	회사원	7.6 (49)				30.6 (15)	42.9 (21)	12.2 (6)	8.2 (4)	6.1 (3)
	축산업	1.7 (11)				18.2 (2)	36.4 (4)	9.1 (8)	18.2 (2)	18.2 (2)
	노동	11.1 (72)				37.5 (27)	26.4 (19)	9.7 (7)	22.2 (16)	4.2 (3)
	기타	5.7 (37)				27.0 (10)	56.8 (21)	8.1 (3)	2.7 (1)	5.4 (2)

〈그림 6〉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 인식



2) 통일방안과 통일주체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의 통일방안과 통일주체에 대한 인식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인지도, 통일의 주체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1)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인지도

우리나라의 통일방안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의 통일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11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잘 알고 있다 ② 조금 알고 있다 ③ 거의 모르고 있다 ④ 전혀 모르고 있다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表11>에 나타난 것처럼 ‘거의 모르고 있다’ 43.3%, ‘조금 알고 있다’ 32.4%, ‘전혀 모르고 있다’ 21.3%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우리 나라의 통일방안에

대해 알고 있는 아동의 비율(35.5)보다 모르고 있는 아동의 비율(64.6)이 훨씬 더 높음을 보여준다. 즉, 통일 주역세대로서 관심부족을 드러냈던 아동들은 스스로 우리 나라의 통일방안에 대한 자신의 인지도에도 매우 낮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통일에 대한 열망과 기대 및 당위론에 대한 의식정도 등은 높은 반면 그 구체적인 실천 방안인 우리 나라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미약하다는 것은 그들의 통일에 대한 염원만큼이나 통일문제에 대해 무관심함을 보여주는데, 이는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이상과 구호에만 그치는 단순히 감정적 차원의 교육으로만 해 오지 않았나 하는 반성을 하게 해준다. 6학년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와 유사한 질문내용의 선행연구¹⁶⁾에서 우리 나라에서 주장하는 통일방안에 대해 긍정적 견해를 보인 83.61%에 비하면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성숙된 통일 여건에도 불구하고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표11〉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 보면 성별과 지역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지는 않으나 남자(36.7)와 시(37.8) 지역이 통일방안에 대한 인지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공무원(43.3)과 회사원(40.8)이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해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반응을 나타내었고, 노동(27.4)이 정반대의 반응을 보였다. 직업별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고 있다.

(2) 통일의 주체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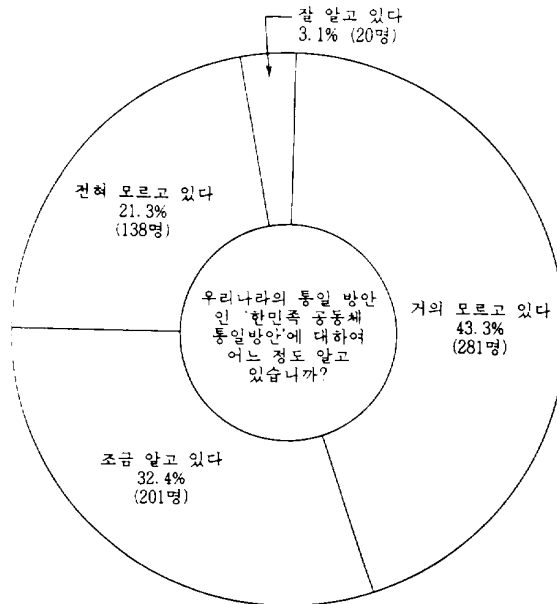
통일은 우리 민족이 꼭 이룩해야 할 역사적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통일의 주체에 대하여 어떤 인식경향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을 위한 노력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12번)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남한 사람들 ② 북한 사람들 ③ 남·북 사람 모두 ④ 남한 지도자 ⑤ 북한 지도자 ⑥ 미국이나 옛소련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16) 최성환, 앞의 논문, pp. 57~58.

〈表 11〉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인지도

변인	변인 구분	변인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체	100.0 (649)				3.1 (20)	32.4 (210)	43.3 (281)	21.3 (138)
성별	남	50.4 (327)	0.87	3	0.8325	3.4 (11)	33.3 (109)	41.6 (136)	21.7 (71)
	여	49.6 (322)				2.8 (9)	31.4 (101)	45.0 (145)	20.8 (67)
지역별	시	31.0 (201)	7.58	6	0.2708	2.5 (5)	35.5 (71)	41.8 (84)	20.4 (41)
	읍	38.4 (249)				1.6 (4)	30.5 (76)	46.2 (115)	21.7 (54)
	면	30.7 (199)				5.5 (11)	31.7 (63)	41.2 (82)	21.6 (43)
직업별	농업	32.5 (211)	20.07	21	0.5167	3.3 (7)	31.3 (66)	45.0 (95)	20.4 (43)
	상업·서비스업	24.3 (158)				4.4 (7)	31.0 (49)	44.3 (70)	20.3 (32)
	어업	8.0 (52)				7.7 (4)	30.8 (16)	34.6 (18)	26.9 (14)
	공무원	8.9 (58)				3.4 (2)	39.7 (23)	43.1 (25)	13.8 (8)
	회사원	7.6 (49)					40.8 (20)	40.8 (20)	18.4 (9)
	축산업	1.7 (11)					18.2 (2)	54.5 (6)	27.3 (3)
	노동	11.2 (73)					27.4 (20)	46.6 (34)	26.0 (19)
	기타	5.7 (37)					37.8 (14)	35.1 (13)	27.0 (10)

〈그림 7〉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인지도



그 결과 <표12>에 나타난 것처럼 '남북 사람 모두'에 91.7%라는 매우 높은 반응을 나타내어 통일이 더이상 남북문제가 아닌 남북민족 전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해야 할 문제점임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한 문항으로 선행 연구된 서창배의 조사¹⁷⁾에서도 본 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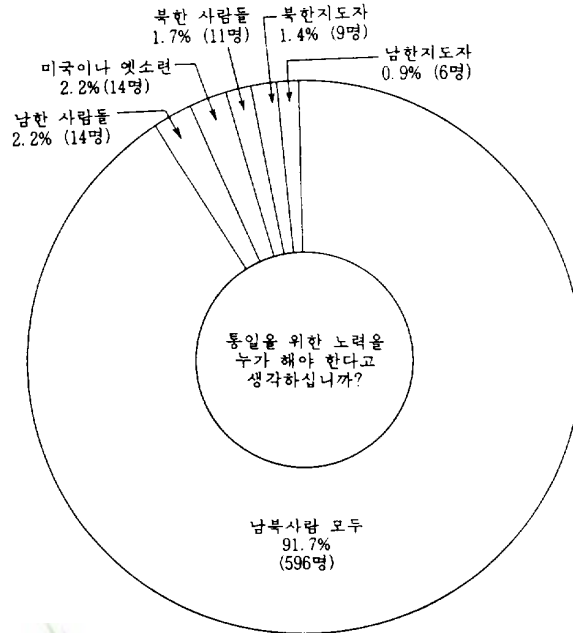
<표12>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여자(94.1)가 남자(89.3)보다 통일의 주체로 '남북 사람 모두'에 약간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의한 차는 보이고 있지 않다. 지역별에 따라서는 비슷하게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며 유의한 차는 없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는 없으나 공무원(96.6)이 통일의 주체로 '남북 사람 모두'에 가장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고, 회사원(83.7)이 가장 낮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17) 서창배, 앞의 논문, p. 256.

〈表 12〉 통일외의 주체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	계	100.0 (650)				2.2 (14)	1.7 (11)	91.7 (596)	0.9 (6)	1.4 (9)	0.2 (14)
성 별	남	50.3 (327)	8.32	5	0.1393	2.1 (7)	1.8 (6)	89.3 (292)	1.2 (4)	2.1 (7)	3.4 (11)
	여	49.7 (323)				2.2 (7)	1.5 (50)	94.1 (304)	0.6 (2)	0.6 (2)	0.9 (3)
지 역 별	시	30.8 (200)	8.40	10	0.5894	1.5 (3)	1.5 (3)	92.5 (185)		2.5 (5)	2.6 (4)
	읍	38.5 (250)				2.4 (6)	1.2 (3)	91.2 (228)	1.6 (4)	0.6 (2)	2.8 (7)
	면	30.6 (200)				2.5 (5)	2.5 (5)	91.5 (183)	1.0 (2)	1.0 (2)	1.5 (3)
직 업 별	농업	32.6 (212)	27.89	35	0.7994	2.4 (5)	1.9 (4)	93.9 (183)	0.5 (1)		1.4 (3)
	상업·서비스업	24.3 (158)				2.5 (4)	1.3 (92)	91.1 (144)	1.3 (2)	1.9 (3)	1.9 (3)
	어업	8.0 (52)				1.9 (1)		90.4 (47)	1.9 (1)	1.9 (1)	3.8 (2)
	공무원	8.9 (58)					1.7 (1)	96.6 (56)		1.7 (1)	
	회사원	7.5 (49)				2.0 (1)	4.1 (92)	83.7 (41)	2.0 (1)	4.1 (2)	4.1 (2)
	축산업	1.7 (11)				9.1 (1)		81.8 (9)			9.1 (1)
	노동	11.2 (73)					1.4 (1)	91.8 (67)	1.4 (1)	2.7 (2)	2.7 (2)
	기타	5.7 (37)				5.4 (2)	2.7 (1)	89.2 (33)			2.7 (1)

〈그림 8〉 통일의 주체에 대한 인식



3) 통일여건 조성 과 통일논의 상황인식

통일여건 조성 과 통일논의의 상황에 대한 인식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 통일의 장애요인, 주한 미군,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 통일독일에 대한 인식 등을 조사·분석하였다.

(1)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 인식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을 주도할 수 있기 위한 국내적 과제를 아동들은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3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국민단결 ② 꾸준한 남북대화 및 교류 ③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④ 나라의 힘 기르

기 ⑤ 기타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13>에 나타난 것처럼 '꾸준한 남북대화 및 교류' 51.5%, '국민단결' 27.2%, '북한 사회에 대한 이해' 9.3%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아동들의 반응경향은 남북한의 통일문제에 있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북한의 대립적인 현실을 타개하는 것이고 그것은 남북한 쌍방의 협상과 대화없이 해결될 수 없는 것임을 아동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13>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보면 성별과 지역별 모두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여자(57.3)가 남자(45.8)보다, 면(60.6)이 읍(50.0)·시(44.5)보다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로 '꾸준한 남북대화 및 교류'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통일여건 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로 '꾸준한 남북대화 및 교류'에 어업(59.6)과 공무원(53.4)이 비교적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유의한 차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통일의 장애요인 인식

국민학교 6학년 아동들이 생각하는 통일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통일이 안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김일성이 북한을 개방하지 않아서 ② 남북한이 서로 믿지 않아서 ③ 민주주의(남한사회)와 공산주의(북한사회)가 서로 자기네 것이 좋다고 우겨서 ④ 남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해서 ⑤ 북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해서 ⑥ 미군이 남한에 머물러 있어서 ⑦ 주변 강대국이 방해를 해서 ⑧ 서로 군사의 힘만 키워서 등 여덟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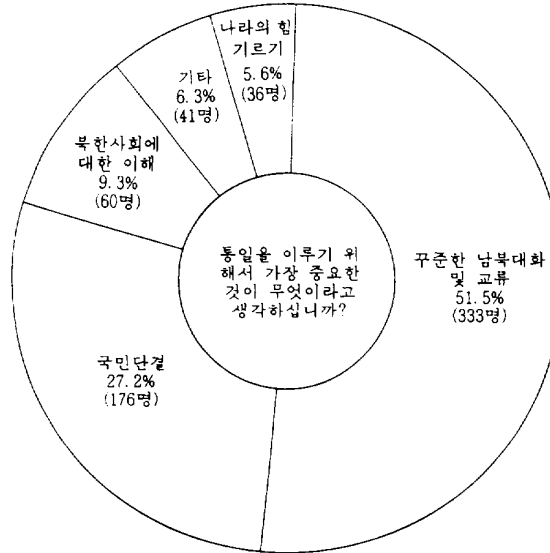
그 결과 <표14>에 나타난 것처럼 '김일성이 북한을 개방하지 않아서' 55.9%, '남북한이 서로 믿지 않아서' 29.0%, '민주주의(남한사회)와 공산주의(북한사회)가 서로 자기네 것이 좋다고 우겨서' 8.0%, '서로 군사의 힘만 키워서' 4.1%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남북분단의 원인으로 외부적 요인보다 내부적 요인을 지적했던 아동들은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에서도 전체응답자의 99%라는 대다수의 아동들이

〈表 13〉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 인식

(* P<0.05)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0.0 (646)				27.2 (176)	51.5 (333)	9.3 (60)	5.6 (36)	6.3 (41)
성별	남	50.3 (325)	9.72	4	* 0.0454	31.4 (102)	45.8 (149)	9.2 (30)	6.5 (21)	7.1 (23)
	여	49.7 (321)				23.1 (74)	57.3 (184)	9.3 (30)	4.7 (15)	5.6 (18)
지역별	시	31.0 (200)	17.89	8	* 0.0222	31.0 (62)	44.5 (89)	11.0 (22)	8.0 (16)	5.5 (11)
	읍	38.4 (248)				30.2 (75)	50.0 (124)	8.5 (21)	5.6 (14)	5.6 (14)
	면	30.7 (198)				19.7 (39)	60.6 (120)	8.6 (17)	3.0 (6)	8.1 (16)
직업별	농업	32.4 (209)	20.44	28	0.8480	29.7 (62)	50.7 (106)	7.2 (15)	4.8 (10)	7.7 (16)
	상업·서비스업	24.5 (158)				29.7 (47)	51.3 (81)	10.8 (17)	4.4 (7)	3.8 (6)
	어업	8.0 (52)				17.3 (9)	59.6 (31)	7.7 (4)	5.8 (3)	9.6 (5)
	공무원	9.0 (58)				24.1 (14)	53.4 (31)	12.1 (7)	6.9 (4)	3.4 (2)
	회사원	7.4 (48)				29.2 (14)	43.8 (21)	10.4 (5)	12.5 (6)	4.2 (2)
	축산업	1.7 (11)				27.3 (3)	63.6 (7)		9.1 (1)	
	노동	11.3 (73)				24.7 (18)	50.7 (37)	11.0 (8)	5.5 (4)	8.2 (6)
	기타	5.7 (37)				24.3 (9)	51.4 (19)	10.8 (4)	2.7 (1)	10.8 (4)

〈그림 9〉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국내적 과제인식



내적 요인을 들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김일성의 폐쇄정책을 제일로 꼽았다. 대학생 을 중심으로 이와 유사한 문항을 가지고 조사한 임병춘의 연구¹⁸⁾에서도 80% 이상이 민족의식의 측면에서 남북한 내부에 통일의 장애요인이 잠재되어 있다는 반응을 보여 주었다. 이들 조사결과나 민족이라는 새로운 이데올로기가 증시되고 평화와 화해를 모색하는 국제관계의 흐름에 비추어 볼때 남북한 통일의 관건이 민족의 내부역량에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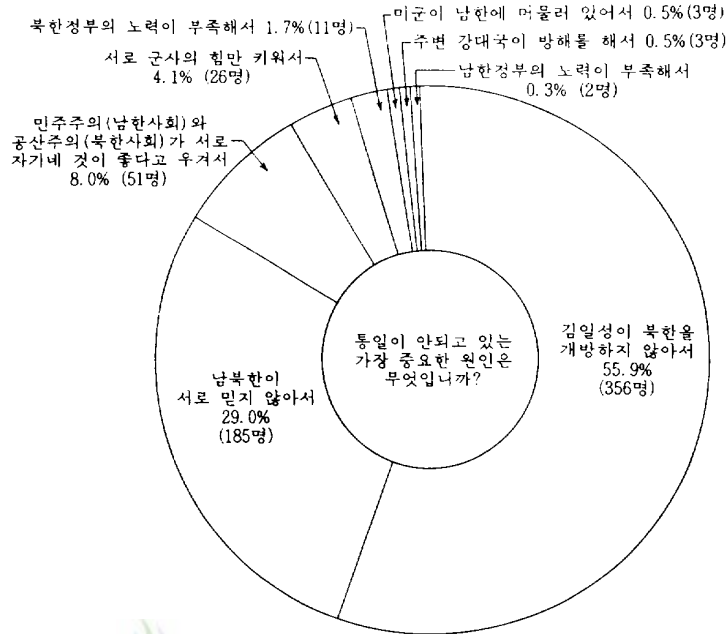
〈표14〉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과 지역별에 따라서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김일성의 폐쇄정책'과 '남북한 이념대립'에 응답을 하였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기타직업(63.9)과 상업(60.9)이 타직업에 비해 가장 많이 '김일성이 폐쇄정책'을 통일의 장애요인으로 꼽았다. 각 배경변인별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고 있다.

18) 임병춘, 앞의 논문, p. 207.

〈表 14〉 통일의 장애요인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계	100.0 (637)				55.9 (356)	29.0 (185)	8.0 (51)	0.3 (2)	1.7 (11)	0.5 (3)	0.5 (3)	4.1 (26)
성 별	남	50.1 (319)	9.60	7	0.2123	58.6 (187)	27.0 (86)	8.2 (26)		0.9 (3)	0.9 (3)	0.6 (2)	3.8 (12)
	여	49.9 (318)				53.1 (169)	31.1 (99)	7.9 (25)	0.6 (2)	2.5 (8)			0.3 (1)
지 역 별	시	31.1 (198)	5.68	14	0.9738	56.6 (112)	29.8 (59)	8.1 (16)		1.0 (2)	0.5 (1)	0.5 (1)	3.5 (7)
	읍	38.0 (242)				56.2 (136)	29.3 (71)	7.9 (19)	0.4 (1)	1.7 (4)	0.4 (1)	0.8 (2)	3.3 (8)
	면	30.9 (197)				54.8 (108)	27.9 (55)	8.1 (16)	0.5 (1)	2.5 (5)	0.5 (1)		5.6 (11)
직 업 별	농업	32.3 (206)	34.25	49	0.9456	52.4 (108)	31.6 (65)	8.7 (18)		1.5 (3)	1.0 (2)	0.5 (1)	4.4 (9)
	상업·서비스업	24.5 (156)				60.9 (95)	25.0 (39)	6.4 (10)		1.3 (2)	0.6 (1)	1.3 (2)	3.8 (6)
	어업	7.8 (50)				52.0 (26)	28.0 (14)	8.0 (4)		8.0 (4)			4.0 (2)
	공무원	8.9 (57)				54.4 (31)	31.6 (18)	7.0 (4)		1.8 (1)			5.3 (3)
	회사원	7.7 (49)				59.2 (29)	30.6 (15)	6.1 (3)				2.0 (1)	2.0 (1)
	축산업	1.7 (1)				54.5 (6)	18.2 (2)	18.2 (2)					9.1 (1)
	노동	11.3 (72)				52.8 (38)	31.9 (23)	9.7 (7)		1.4 (1)			4.2 (3)
	기타	5.7 (36)				63.9 (23)	25.4 (9)	8.3 (3)					2.8 (1)

〈그림 10〉 통일의 장애요인 인식



(3) 주한 미군에 대한 인식

지금까지 주한 미군은 북한을 누르는 압도적인 힘의 상징으로 인식되어 왔다. 통일과 관련하여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한 아동들의 의식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머물러 있는 미군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②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통일이 안되어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 ③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 ④ 잘 모르겠다등 네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15>에 나타난 것처럼 '자주국방 능력이 있을 경우 통일이 안되어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 39.5%, '자기국방 능력이 있어도 통일이 될때까지 계속 머물러야 한다' 25.0%, '잘 모르겠다' 23.0%,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 12.4%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아동들의 반응경향은 아직도 국가안보적 입장에서 주한 미군이 제2의 6·25와 같은 전쟁 발발을 방지하는데 중요한 제재장치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그보다는 자주국방능력이 갖추어질 경우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역량에 의해 통일을 이룩하려는 강한 의지가 더 큼을 말해준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으로 선행연구된 최성환의 조사¹⁹⁾에서는 응답자의 81.76%가 우리 나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의 존재 필요성을 인정했었다. 그때와 비교하면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아동들의 주한 미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점점 낮아진 대신 민족자존적 측면에서 민족주의의 이념이 많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배경변인별에 따른 반응결과는 성별·지역별·부모의 직업별 모두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체로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53.2)가, 지역별에 따라서는 읍(54.3)이,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상업·서비스업(56.0)과 회사원(54.2)이 주한미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48.3)인 경우 주한 미군에 대한 긍정적 태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특이하다.

(4)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에 대한 인식

우리 정부가 의도적으로 접촉하고 다방면의 교류를 시도하고 있는 공산국과의 관계개선과 교류확대는 단순히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서만이 아닌, 남북한간의 관계개선과 나아가 통일기반과 통일환경의 조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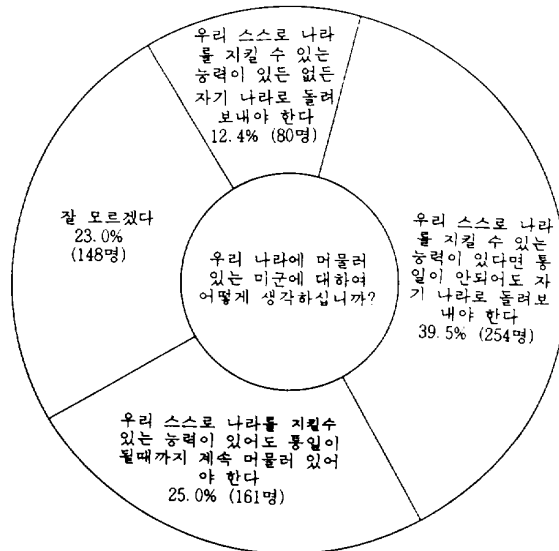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요즘 동구 여러나라·중국·옛소련(독립국가연합) 등 활발해지고 있는 공산권

19) 최성환, 앞의 논문, pp. 70~71.

〈表 15〉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전	체	100.0 (643)				25.0 (161)	39.5 (254)	12.4 (80)	23.0 (148)
성 별	남	50.2 (323)	4.72	3	0.1939	28.2 (91)	37.5 (121)	13.3 (43)	21.1 (68)
	여	49.8 (320)				21.9 (70)	41.6 (133)	11.6 (37)	25.0 (80)
지 역 별	시	31.3 (201)	8.58	6	0.1989	28.4 (57)	38.3 (77)	13.4 (27)	19.9 (40)
	읍	38.4 (247)				20.2 (50)	39.7 (79)	14.6 (36)	25.5 (63)
	면	30.3 (195)				27.7 (54)	40.5 (79)	8.7 (17)	23.1 (45)
직 업 별	농업	32.3 (208)	15.88	21	0.7764	25.0 (52)	37.5 (78)	12.5 (26)	25.0 (52)
	상업·서비스업	24.4 (157)				21.0 (33)	45.2 (71)	10.8 (17)	22.9 (36)
	어업	7.9 (51)				29.4 (15)	37.3 (19)	13.7 (7)	19.6 (10)
	공무원	9.0 (58)				39.7 (23)	34.5 (20)	13.8 (8)	12.1 (7)
	회사원	7.5 (58)				25.0 (12)	39.6 (19)	14.6 (7)	20.8 (10)
	축산업	1.7 (11)				18.2 (2)	27.3 (3)	18.2 (2)	36.4 (4)
	노동	11.4 (73)				18.9 (17)	38.4 (28)	12.3 (9)	26.0 (19)
	기타	5.8 (37)				18.9 (7)	43.2 (16)	10.8 (4)	27.0 (10)

〈그림 11〉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



국가와의 교류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6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 ② 통일을 위해 많이 교류해야 한다 ③ 믿을 수 없으니 조금만 교류한다 ④ 잘 모르겠다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16>에 나타난 것처럼 ‘통일을 위해 많이 교류해야 한다’ 60.9%, ‘잘 모르겠다’ 21.8%, ‘믿을 수 없으니 조금만 교류한다’ 10.7%,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 6.6%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반응결과는 통일에 임하는 아동들의 자세가 비교적 적극적이고 진취적임을 보여주지만, 아직도 공산권 국가에 대한 거부감이 아동들 의식속에 상당부분 존재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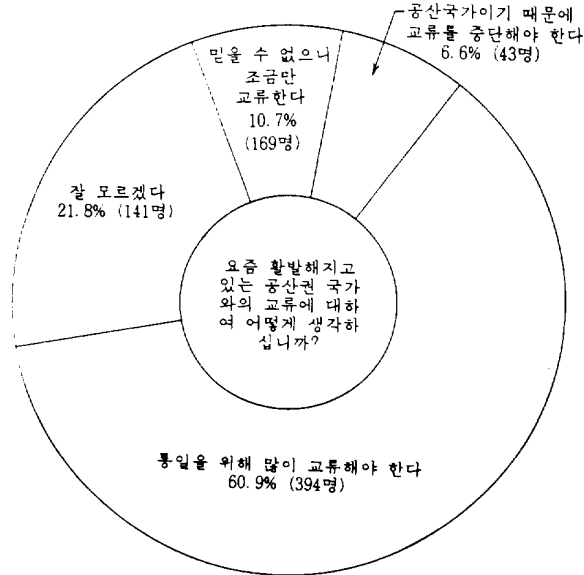
<표16>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녀 큰 차이없이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다. 지역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시(68.2)가 읍(56.7)·면(58.8)에 비해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에 가장

〈表 16〉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에 대한 인식

(* P<0.05)

변인	변인 구분	변인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체	100.0 (647)				6.6 (43)	60.9 (394)	10.7 (69)	21.8 (141)
성별	남	50.5 (327)	10.44	3	* 0.0152	9.5 (31)	61.5 (201)	9.8 (32)	19.3 (63)
	여	49.5 (320)				3.8 (12)	60.3 (193)	11.6 (37)	24.4 (78)
지역별	시	31.1 (201)	9.54	6	0.1454	5.5 (11)	68.2 (137)	7.0 (14)	19.4 (39)
	읍	38.2 (247)				6.1 (15)	56.7 (140)	13.4 (33)	23.9 (59)
	면	30.8 (199)				8.5 (17)	58.8 (117)	11.1 (22)	21.6 (43)
직업별	농업	32.6 (211)	22.80	21	0.3548	5.7 (12)	64.0 (135)	10.0 (21)	20.4 (43)
	상업·서비스업	24.4 (158)				7.0 (11)	63.9 (101)	7.0 (11)	22.2 (35)
	어업	7.9 (51)				13.7 (7)	47.1 (24)	9.8 (5)	29.4 (15)
	공무원	9.0 (58)				5.2 (3)	67.2 (39)	6.9 (4)	20.7 (12)
	회사원	7.6 (49)				4.1 (2)	57.1 (28)	22.4 (11)	16.3 (8)
	축산업	1.7 (11)					54.5 (6)	18.2 (2)	27.3 (3)
	노동	11.1 (72)				6.9 (5)	58.3 (42)	12.5 (9)	22.2 (16)
	기타	5.7 (37)				8.1 (3)	51.4 (19)	16.2 (6)	24.3 (9)

〈그림 12〉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에 대한 인식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에 공무원(67.2)과 농업(64.0)이 가장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낸 반면 어업(47.1)이 가장 소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유의한 차는 없다.

(5) 통일독일에 대한 인식

통일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애써 만들어 가야만 하는 지고의 과제이다. 이와 관련하여 같은 분단국이었다가 우리보다 먼저 통일을 성취한 통일독일을 바라보는 아동들의 시각이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하여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17번)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우리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② 독일이 부럽다 ③ 독일민족이 노력해서 이루어졌다 ④ 어쩌다보니 통일이 되었다 ⑤ 통일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17>에 나타난 것처럼 '독일민족이 노력해서 이루어졌다' 48.1%, '독일이 부럽다' 38.0 순으로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아동들이 통일조국의 그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는 있지만 조국의 통일은 밖에서 누군가에 의해 우리품에 안겨지는 것이 아닌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쟁취해야 할 성격의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배경변인에 따른 반응결과는 성별·지역별·부모의 직업별 모두 유의한 차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북한관

민족공동체인 북한에 관한 국민학교 6학년 아동들의 인식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9개 문항이 설정되었는데, 북한 사회에 대한 관심도·북한 동포·남북한 생활수준·남북한 군사력·서울올림픽·북한의 공식명칭·북한사회에 대한 인식·북한에 대한 지식원·북한관련 교육자료 실태 등의 내용을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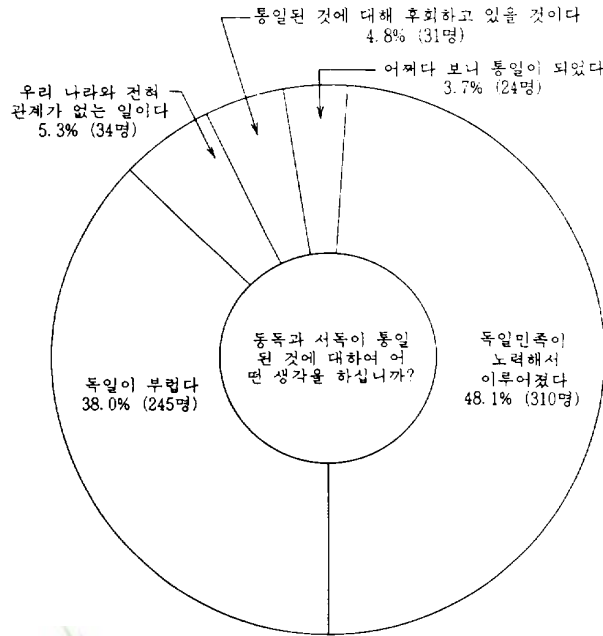
40여년이 넘는 남북의 분단으로 인해 서로 다른 체제속에서 생활하는 동족간의 이질화현상은 점차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아동들의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사회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18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북한 주민의 생활 ②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 ③ 김일성·김정일의 생활 ④ 북한 군대의 힘의 크기 ⑤ 북한 정치가들의 생활 ⑥ 기타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18>에서 나타난 것처럼 자기들과 같은 또래인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에 55.0%로 가장 큰 반응을 나타내었고 이어 '북한 주민의 생활' 20.6%, '북한군

〈表 17〉 통일독일에 대한 인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0.0 (644)				5.3 (34)	38.0 (245)	48.1 (310)	3.7 (24)	4.8 (31)
성별	남	50.6 (326)	1.64	4	0.8007	5.5 (18)	39.0 (127)	46.0 (150)	4.0 (13)	5.5 (18)
	여	49.4 (318)				5.0 (16)	37.1 (118)	50.3 (160)	3.5 (11)	4.1 (13)
지역별	시	31.2 (201)	14.74	8	0.0644	3.5 (7)	36.3 (73)	49.8 (100)	3.5 (7)	7.0 (14)
	읍	38.5 (248)				8.5 (21)	38.7 (96)	46.0 (114)	2.4 (6)	4.4 (11)
	면	30.3 (195)				3.1 (6)	39.0 (76)	49.2 (98)	5.6 (11)	3.1 (6)
직업별	농업	32.6 (210)	22.38	28	0.7636	4.3 (9)	40.0 (84)	46.7 (98)	5.2 (11)	3.8 (8)
	상업·서비스업	24.7 (159)				5.0 (8)	40.3 (64)	46.5 (74)	2.5 (4)	5.7 (9)
	어업	7.8 (50)				8.0 (4)	30.0 (15)	58.0 (29)	2.0 (1)	2.0 (1)
	공무원	9.0 (58)					39.7 (23)	48.3 (28)	3.4 (2)	8.6 (5)
	회사원	7.6 (49)				8.2 (4)	32.7 (16)	53.1 (26)	2.0 (1)	4.1 (2)
	축산업	1.2 (8)				12.5 (1)	37.5 (3)	37.5 (3)	12.5 (1)	
	노동	11.3 (73)				9.6 (1)	37.5 (3)	37.5 (3)	12.5 (1)	
	기타	5.7 (35)				2.7 (1)	35.1 (13)	56.8 (21)	2.7 (1)	2.7 (1)

〈그림 13〉 통일독일에 대한 인식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대의 힘의 크기' 9.6%, '김일성·김정일의 생활' 8.2%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와 유사한 질문내용의 선행연구 최성환의 조사²⁰⁾에서는 가장 알고 싶은 북한사회에 대해 주민생활 및 어린이 학교생활 43.5%, 김일성부자 생활과 얼굴모습 21.55%, 군사력 7.72% 순으로 응답함으로써 10년전의 아동들이나 지금의 아동들 모두 한 겨레인 북한 동포의 생활을 가장 궁금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18〉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여자(63.2)가 남자(46.9)보다 '북한 어린이의 학교생활'에 높은 반응을 나타낸 반면, '북한군대의 힘의 크기'에 있어서

20) 최성환, 위의 논문, pp. 71~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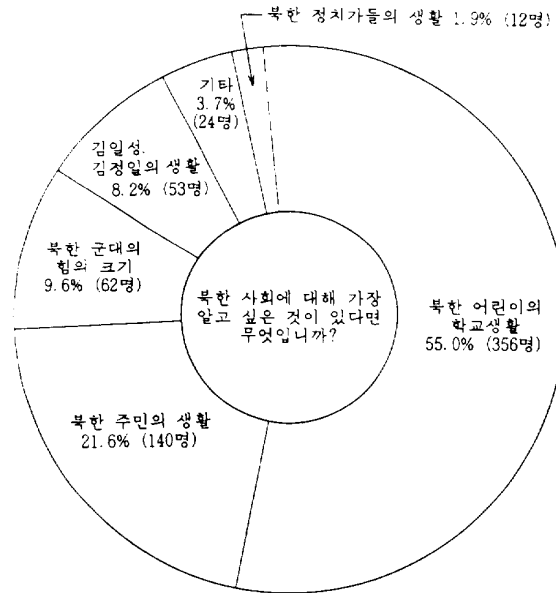
는 남자(16.9)보다 훨씬 낮은 반응(2.2)을 보여주었다. 지역별과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없으나 시(58.5)가 면(52.8)보다, 상업·서비스업(61.3)과 어업(59.6)이 공무원(46.6)·농업(50.2)보다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고, '북한군대의 힘의 크기'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가장 높은 반응(22.4)을 보였다.

〈表 18〉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도

(*** P<0.001)

변인	변인구분	부인성비(%)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00.0 (647)				21.6 (140)	55.0 (356)	8.2 (53)	5.9 (62)	1.9 (12)	3.7 (24)
성별	남	50.4 (326)	48.04	5	**** 0.0000	20.6 (67)	46.9 (153)	8.9 (29)	16.9 (35)	2.6 (9)	4.0 (13)
	여	49.6 (321)				22.7 (73)	63.2 (203)	7.5 (24)	2.2 (7)	0.9 (3)	3.4 (11)
지역별	시	30.9 (200)	9.402	10	0.4943	20.0 (40)	56.5 (117)	8.0 (16)	10.0 (20)	1.0 (2)	2.5 (5)
	읍	38.3 (248)				19.0 (47)	54.0 (134)	8.9 (22)	10.1 (25)	2.6 (7)	5.2 (13)
	면	30.8 (199)				26.6 (53)	52.8 (105)	7.5 (15)	8.5 (17)	1.5 (3)	3.0 (6)
직업별	농업	32.9 (213)	39.50	35	0.2757	25.4 (54)	50.2 (107)	7.0 (15)	9.9 (21)	1.9 (4)	5.6 (12)
	상업·서비스업	24.0 (155)				17.4 (27)	61.3 (95)	7.1 (11)	7.7 (12)	3.9 (6)	2.6 (4)
	어업	8.0 (52)				19.2 (10)	59.6 (31)	11.5 (8)	5.8 (3)	1.9 (1)	1.9 (1)
	공무원	9.0 (58)				17.2 (10)	46.6 (27)	8.6 (5)	22.4 (13)	1.7 (1)	3.4 (2)
	회사원	7.6 (49)				16.3 (8)	57.1 (28)	10.2 (5)	12.2 (6)		4.1 (2)
	축산업	1.7 (11)				9.1 (1)	90.9 (10)				
	노동	11.1 (72)				26.4 (19)	54.2 (39)	91.8 (7)	6.9 (5)		2.6 (2)
	기타	5.7 (37)				29.7 (11)	51.4 (19)	10.8 (4)	5.4 (2)		2.7 (1)

〈그림 14〉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도



2) 북한 동포에 대한 인식

같은 민족이면서도 한번도 만날 수 없었던 북한 동포에 대해 어느 정도 동포애를 느끼고 있는지 감정적 성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 어린이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9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같은 동포로 생각하고 아주 잘 대해 주겠다 ②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하겠다 ③ 외국인 같은 기분으로 대하겠다 ④ 공산주의 인간임으로 경계하겠다 ⑤ 대화를 전혀 하지 않겠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19>에 나타난 것처럼 ‘같은 동포로 생각하고 아주 잘 대해주겠다’ 69.5%,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하겠다’ 23.9%, ‘외국인 같은 기분으로 대하겠다’ 2.8% 순으로 응답하였다. 이처럼 전체응답자의 69.5%가 북한 어린이에 대해 아주

호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반면 유동적·기피적 반응을 보이는 아동들도 30.5%나 되어 아동들 의식속에 북한동포에 대한 경계의식이 꽤 많이 잠재워져 있음을 보여주고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이 민족통합의 측면과는 아주 거리가 먼 교육이었음을 일깨워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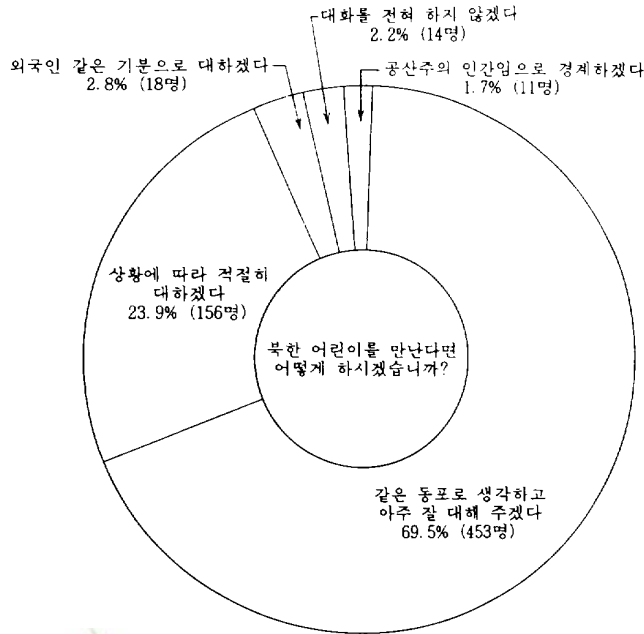
〈표19〉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

〈表 19〉 북한동포에 대한 인식

(* P<0.05)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0.0 (652)				69.5 (453)	23.9 (156)	2.8 (18)	1.7 (11)	2.2 (14)
성 별	남	50.5 (329)	11.84	5	* 0.0371	67.5 (222)	23.4 (77)	2.7 (9)	2.7 (9)	3.6 (12)
	여	49.5 (323)				71.5 (231)	24.5 (79)	2.8 (9)	0.6 (2)	0.6 (2)
지 역 별	시	30.8 (201)	6.72	10	0.7516	68.7 (136)	24.9 (50)	3.0 (6)	1.5 (3)	2.0 (4)
	읍	38.3 (250)				69.6 (174)	22.8 (57)	2.4 (6)	2.6 (7)	2.4 (6)
	면	30.8 (201)				70.1 (141)	24.4 (49)	3.0 (6)	1.0 (2)	1.5 (3)
직 업 별	농업	32.7 (213)	48.01	35	0.0703	70.1 (150)	25.5 (48)	1.4 (3)	1.0 (2)	4.7 (10)
	상업·서비스업	24.4 (159)				67.9 (108)	28.9 (46)	1.3 (2)	1.9 (3)	
	어업	8.0 (52)				76.9 (40)	15.4 (8)	1.9 (1)	3.8 (2)	1.9 (1)
	공무원	8.9 (58)				65.5 (38)	29.3 (17)	3.4 (2)	1.7 (1)	
	회사원	7.5 (49)				65.3 (32)	26.5 (13)	4.1 (2)	4.1 (2)	
	축산업	1.7 (11)				54.5 (6)	27.3 (3)	18.2 (2)		
	노동	11.2 (73)				71.2 (52)	21.9 (16)	5.5 (4)		1.4 (1)
기타	5.7 (37)	73.0 (27)	13.5 (5)	5.4 (2)	5.4 (2)	2.7 (1)				

〈그림 15〉 북한동포에 대한 인식



(71.5)가 남자(67.5)보다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며 북한 어린이에 대해 약간 높은 호의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지역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는 없으나, 면이 약간 높은 호의적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역시 유의한 차는 없으나, 어업(76.9)과 기타직업(73.0)이 가장 높은 호의적 태도를, 공무원(65.5)과 회사원(65.3)이 가장 낮은 호의적 태도를 나타내고 있다.

3) 남북한 생활수준 비교

남북한의 주민생활수준에 대해 아동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리 나라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정도를 비교해 볼때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20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우리가 아주 잘 살 것이다 ②

우리가 약간 잘 살 것이다 ③ 서로 비슷하게 살 것이다 ④ 북한이 조금 더 잘 살 것이다 ⑤ 북한이 아주 잘 살 것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20>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가 아주 잘 살 것이다' 43.5%, '우리가 약간 잘 살 것이다' 30.6%, '서로 비슷하게 살 것이다' 22.4%, '북한이 조금 더 잘 살 것이다' 2.8%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전체응답자의 74.1%의 아동들은 '우리가 잘 살 것이다'에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어, 우리 나라 경제력 신장에 따른 국민의 생활이 북한보다 훨씬 우위임을 아동들도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질문내용의 선행연구²¹⁾ 남북한 생활수준 비교에서 90.10%가 '우리가 월등히 잘 산다'에 응답하였는데, 이와 비교하면 지금의 아동들이 우리의 경제력에 대한 평가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아동들이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북한 자료의 부족과 주입식 교육으로 인한 교육의 불신감, 그리고 최근 점점 더 문제화되고 있는 우리 경제의 어려움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20>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과 지역별에 따라서는 남자(78.7)가 여자(69.2)보다, 면(77.0)이 읍(69.6)보다 '우리가 잘 살 것이다'에 높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유의한 차는 없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으나, 공무원(81.1)과 기타직업(81.0)이 '우리가 잘 살 것이다'에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낸 반면 노동(64.4)이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4)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인식

우리 나라의 통일정책 기조는 '선평화·후통일'이라는 단계적인 통일 논리에 입각한 '민족화합·민족통일'이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우리는 한 핏줄을 타고난 단일 민족이기에 싸우지 않고 승리하여 민주주의 국가로 통일시키자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인식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6·25와 같은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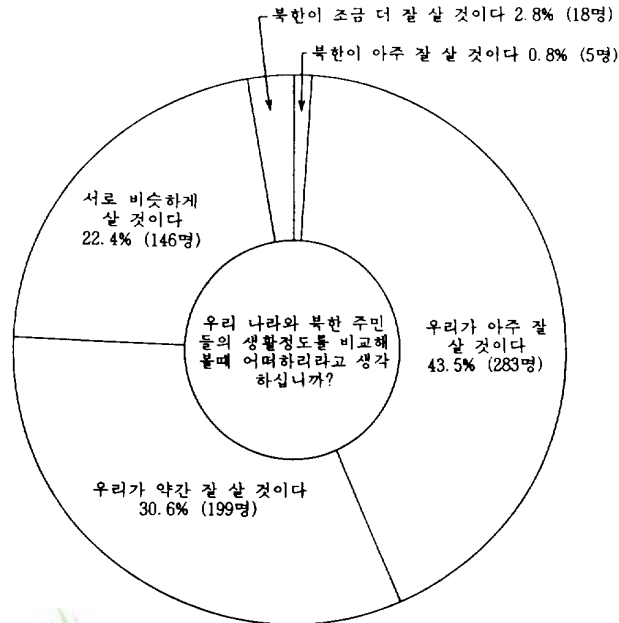
21) 최성환, 위의 논문, pp. 73~74.

이 일어나서 우리 나라와 북한이 싸우게 된다면 여러분은 우리 나라가 어떠한리라고 생각하십니까?” (21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큰 차이로 이길 것이다 ② 조금 차이나게 이길 것이다 ③ 서로 비슷할 것이다 ④ 조금 차이로 질 것이다 ⑤ 큰 차이로 질 것이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表 20〉 남북한 생활수준 비교 인식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체	100.0 (651)				43.5 (283)	30.6 (199)	22.4 (146)	2.8 (18)	0.8 (5)
성별	남	50.5 (329)	9.02	4	0.0607	47.7 (157)	31.0 (102)	17.9 (59)	2.7 (9)	0.6 (2)
	여	49.5 (322)				39.1 (126)	30.1 (97)	27.0 (87)	2.8 (9)	0.9 (3)
지역별	시	30.9 (201)	7.20	8	0.5155	44.8 (90)	31.8 (64)	19.9 (40)	3.0 (60)	0.5 (4)
	읍	38.4 (250)				40.6 (102)	28.8 (72)	27.2 (68)	2.0 (5)	1.2 (3)
	면	30.7 (200)				45.5 (91)	31.5 (63)	19.0 (38)	3.5 (7)	0.5 (1)
직업별	농업	32.6 (212)	29.92	28	0.3672	41.5 (88)	31.6 (67)	24.5 (52)	1.9 (4)	0.5 (1)
	상업·서비스업	24.4 (159)				46.5 (74)	29.6 (47)	20.1 (32)	3.8 (6)	
	어업	8.0 (52)				42.3 (22)	34.6 (18)	19.2 (10)	3.8 (2)	
	공무원	8.9 (58)				48.3 (28)	32.8 (19)	17.2 (10)	1.7 (1)	
	회사원	7.5 (49)				55.1 (27)	20.4 (10)	18.4 (9)	4.1 (2)	2.0 (1)
	축산업	1.7 (11)				18.2 (2)	27.3 (3)	54.5 (6)		
	노동	11.2 (73)				32.9 (24)	31.5 (23)	30.1 (22)	2.7 (2)	2.7 (2)
	기타	5.7 (37)				48.6 (18)	32.4 (12)	13.5 (5)	2.7 (1)	2.7 (1)

〈그림 16〉 남북한 생활수준 비교 인식



그 결과<표21>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비슷할 것이다' 51.1%, '조금 차이나게 이길 것이다' 19.8%, '큰 차이로 이길 것이다' 13.2%, '조금 차이로 질 것이다' 9.0%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아동들은 '서로 비슷할 것이다' 51.5%, '우리가 이길 것이다' 33.0%, '우리가 질 것이다' 15.9% 순으로 반응을 나타내었는데, 이는 아동들의 우리 나라 군사력·국방력에 대한 신뢰도가 별로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이와 유사한 질문내용의 선행연구 최성환의 조사²²⁾에서는 우세할 것이다 59.79%, 서로 비슷할 것이다 22.68%, 약하다 10.72% 순으로 인식해, 본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우리 나라 군사력에 대한 아동들의 신뢰도가 훨씬 낮음을 알 수 있다.

22) 최성환, 위의 논문, pp. 68~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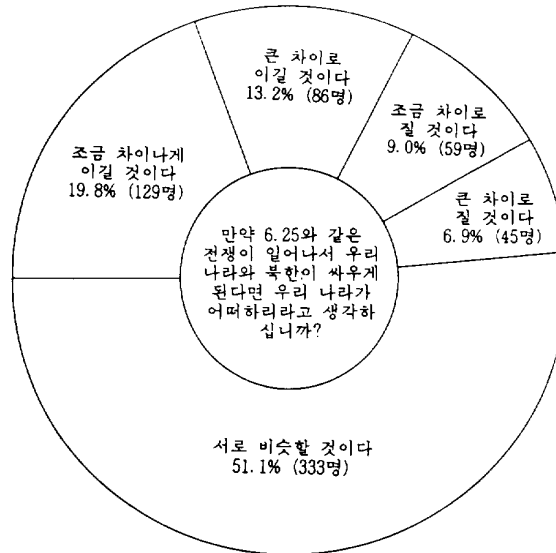
〈표21〉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남자(30.1)가 여자(35.9)보다 '우리 나라가 이길 것이다'에 약간 낮은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읍이 '우리 나라가 이길 것이다'에 타지역보다 약간 낮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우리 나

〈表 21〉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인식

(* $P < 0.05$)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χ^2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0.0 (652)				13.2 (86)	19.8 (129)	51.1 (333)	9.0 (59)	6.9 (45)
성 별	남	50.5 (329)	9.02	4	0.0607	14.0 (46)	16.1 (53)	51.4 (169)	9.4 (31)	9.1 (30)
	여	49.5 (323)				12.4 (40)	23.5 (76)	50.8 (164)	8.8 (28)	4.6 (15)
지 역 별	시	30.8 (201)	19.50	8	* 0.0124	13.4 (27)	19.9 (40)	44.3 (89)	13.9 (28)	8.5 (17)
	읍	38.3 (250)				13.6 (34)	17.2 (43)	58.8 (147)	4.4 (11)	6.0 (15)
	면	30.8 (201)				12.4 (25)	22.9 (46)	48.3 (97)	10.0 (20)	6.5 (13)
직 업 별	농업	32.7 (213)	22.03	28	0.7797	15.0 (32)	19.2 (41)	50.7 (108)	8.0 (17)	7.0 (15)
	상업·서비스업	24.4 (159)				11.3 (18)	19.5 (31)	51.6 (82)	10.1 (16)	7.5 (12)
	어업	8.0 (52)				17.3 (9)	9.6 (5)	59.6 (31)	5.8 (3)	7.7 (4)
	공무원	8.9 (58)				13.8 (8)	25.5 (9)	50.0 (29)	13.8 (8)	6.9 (4)
	회사원	7.5 (49)				8.2 (4)	34.7 (17)	38.8 (19)	8.2 (4)	10.2 (5)
	축산업	1.7 (11)				9.1 (1)	27.3 (3)	45.5 (5)	9.1 (1)	9.1 (1)
	노동	11.2 (73)				15.1 (11)	0.5 (15)	54.8 (40)	6.8 (5)	2.7 (2)
	기타	5.7 (37)				8.1 (3)	21.6 (8)	51.4 (19)	13.5 (5)	0.4 (2)

〈그림 17〉 남북한 군사력에 대한 인식



라가 이길 것이다'에 회사원(42.9)과 노동(35.6)이 가장 큰 반응을 나타낸 반면 농업(24.2)과 어업(26.9)이 가장 낮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5) 서울 올림픽에 대한 인식

'88서울 올림픽의 개최가 우리 국민들에게 주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북한에 대한 인식과 관련하여 서울 올림픽에 대한 아동들의 인식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88서울올림픽을 우리 나라가 개최한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2번)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북한을 누르고 우리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하여 기쁘다 ② 북한과 같이 올림픽을 개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③ 북한이 올림픽을 개최했어야 했다 ④ 잘 모르겠다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22>에 나타난 것처럼 '북한과 같이 올림픽을 개최했으면 더 좋았을 것

이다'에 74.7%로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이어 '북한을 누르고 우리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하여 기쁘다' 14.2%, '잘 모르겠다' 9.2% 순으로 반응하였다. 즉 앞의 조사결과에서 북한 동포들에 대해 어느 정도 호의적 태도(69.5)를 보이면서 경계의식도 늦추지 않았던 아동들은 여기서 다행하게도 '북한과 같이 올림픽을 개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에 비교적 높은 반응(74.7)을 나타내어 북한이 더 이상 우리가 이겨야 할 대결상대가 아닌 같은 민족으로서 함께 공존공영해야 할 동반자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하지만 민족에 대한 정체감이 형성되지 않은 아동들도 29.3%나 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표22>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과 지역별에 따라서는 여자와 시가 각각 76.0%와 77.6%로써 남자와 면·읍에 비해 북한과 같이 올림픽을 개최하지 못하는데에 약간 많은 아쉬움을 표하였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북한과 같이 올림픽을 개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에 기타직업(81.1)과 농업(77.3)이 가장 많은, 어업(67.3)이 가장 낮은 응답을 하였다. 그리고 회사원(20.4)과 공무원(19.0)인 경우 북한에 대한 대결의식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지역별·직업별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고 있다.

6)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한 인식

남한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이고 북한의 공식명칭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다.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의 공식 이름은 무엇입니까?"(23번)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 ②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③ 조선 인민 공화국 등 세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23>에 나타난 것처럼 전체응답자의 14.7%의 아동만이 북한 공식명칭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85.4%라는 대부분의 아동들은 북한의 공식이름에 대해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아동들의 반응경향은 한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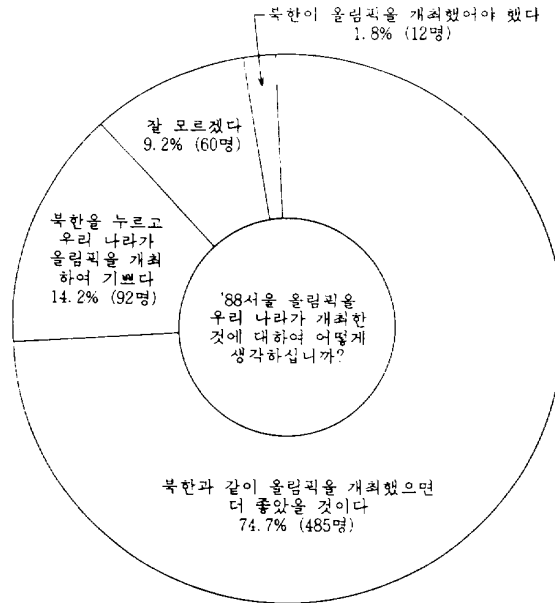
족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북한을 북괴·북한괴뢰도당등 이적단체 취급만 했을뿐,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고 적대감만 고양시킨 때문일 것이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으로 선행연구된 서창배의 조사²³⁾에서도 본조사결과(82.2%)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表 22〉 서울올림픽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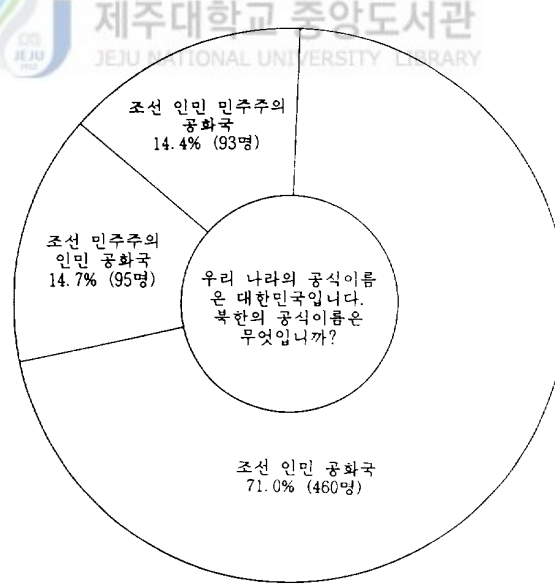
변인	변인 구분	변인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전	체	100.0 (649)				14.2 (92)	74.7 (485)	1.8 (12)	9.2 (60)
성 별	남	50.5 (326)	3.33	3	0.3440	16.5 (54)	73.5 (241)	1.5 (5)	8.5 (28)
	여	49.5 (321)				11.8 (38)	76.0 (244)	2.2 (7)	10.0 (32)
지 역 별	시	31.0 (201)	9.24	6	0.1603	13.4 (27)	77.6 (156)	2.0 (4)	7.0 (14)
	읍	38.1 (247)				17.8 (44)	72.5 (179)	1.2 (3)	8.5 (21)
	면	31.0 (201)				10.4 (21)	74.6 (150)	2.5 (5)	12.4 (25)
직 업 별	농업	32.5 (211)	18.00	21	0.6108	12.8 (27)	77.3 (163)	0.9 (2)	9.0 (19)
	상업·서비스업	24.5 (159)				13.2 (21)	74.8 (119)	1.9 (3)	10.1 (16)
	어업	8.0 (52)				13.5 (7)	67.3 (35)	1.9 (1)	17.3 (9)
	공무원	8.9 (58)				19.0 (11)	72.4 (42)	1.7 (1)	6.9 (4)
	회사원	7.6 (49)				20.4 (10)	75.5 (37)	2.0 (1)	2.0 (1)
	축산업	1.7 (11)				18.2 (2)	63.6 (7)	9.1 (1)	9.1 (1)
	노동	11.1 (72)				12.5 (9)	72.2 (52)	4.2 (3)	11.1 (8)
	기타	5.7 (37)				13.5 (5)	81.1 (30)		5.4 (2)

23) 서창배, 앞의 논문, p. 263.

〈그림 18〉 서울올림픽에 대한 인식



〈그림 19〉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한 인식



〈表 23〉 북한의 공식명칭에 대한 인식

(*** P<0.005)

변인	변인 구분	변인구성비 (%)	X ²	df	유의도	응 구 분			
						①	②	③	
전	체	100.0 (648)				14.7 (95)	14.4 (93)	71.0 (460)	
성 별	남	50.6 (328)	3.33	3	0.	0.6955	15.2 (50)	15.2 (50)	69.5 (228)
	여	49.4 (320)					14.1 (45)	13.4 (43)	72.5 (252)
지 역 별	시	31.9 (200)	18.82	4	*** 0.0009		19.0 (38)	12.0 (24)	69.0 (136)
	읍	38.3 (246)					7.7 (19)	18.5 (46)	73.6 (183)
	면	31.9 (200)					19.0 (36)	11.5 (23)	69.5 (139)
직 업 별	농업	32.6 (211)	20.17	14	0.1250		13.7 (29)	15.2 (32)	17.1 (150)
	상업·서비스업	14.4 (158)					13.9 (22)	15.2 (21)	71.1 (115)
	어업	7.9 (51)					17.6 (9)	7.8 (4)	74.5 (38)
	공무원	9.0 (58)					29.3 (17)	8.6 (5)	62.1 (36)
	회사원	7.6 (49)					8.2 (4)	16.3 (8)	77.5 (37)
	축산업	1.7 (11)						9.1 (1)	90.9 (10)
	노동	11.3 (73)					13.7 (10)	20.5 (15)	65.8 (48)
	기타	5.7 (37)					10.8 (4)	18.9 (7)	70.3 (26)

〈표23〉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고 있으나 남녀 비슷한 수준으로 북한의 공식이름을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에 따라서는 P<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시·면(19.0)이 읍(7.7)에 비해 북한의 공식이름을 많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공무원(29.3), 어업(17.6)이 가장 높게, 회사원(8.2)·기타직업(10.8)이 가장 낮게 북한의 공식이름을 알고 있다는 반응을 나타냈으나, 유의한 차는 없었다.

7)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

분단이후의 세대인 아동들 의식속에 잠재되어 있는 '북한은 과연 어떤 사회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이라는 말을 듣거나 보았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가지만 순서대로 적어주십시오." (24번) 라는 문항을 제시하였고 아동들이 응답한 것을 다음 아홉가지로 즉, ① 김일성(김정일포함) ② 6·25 ③ 통일 ④ 북한 동포들 ⑤ 공산당·공산주의 ⑥ 3·8선·이산가족 ⑦ 북한군대 ⑧ 이질적 요소 ⑨ 기타 등으로 분류하여 조사·분석하였다.²⁴⁾

그 결과 <표24-1>와 <표24-2>에 나타난 것처럼 제1순위에서는 '김일성·김정일' 40.3%, '6·25전쟁' 17.0%, '북한 동포들' 15.5%, '통일' 13.4%, '기타' 6.1% 순으로 답하였으며, 제2순위에서는 '북한 동포들' 24.9%, '공산당·공산주의' 18.9%,

24) 위의 아홉가지 항목들은 각각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 ① 김일성(김정일포함)-김일성·김정일의 배나온 모습, 흑달린 김일성
- ② 6·25전쟁-6·25전쟁, 6·25와 같은 전쟁이 또 일어날 것인가?
6·25와 같은 전쟁이 없었으면 좋겠다.
- ③ 통일-통일이 되었으면, 통일을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통일되어 빨리 북한동포 만나고 싶다. 우리는 하나다(단군자손이다)
- ④ 북한동포들-북한어린이 무용하는 모습, 불쌍한 북한 동포, 웃음이 없는 북한사람 얼굴, 북한 어린이가 군사훈련 받는 모습, 서로 감시하는 북한 동포, 김일성만 믿는 정신병자들, 굶주림에 떠는 북한 동포, 자유 없는 북한 동포
- ⑤ 공산당(공산주의)
- ⑥ 38선, 이산가족-38선, 이산가족이 불쌍하다, 내친척의 아픔
- ⑦ 북한군대-해무기, 군사들 훈련받는 모습, 북한 군사들 걷는 모습
- ⑧ 이질적 요소-북한 사람들 말씨, 옷차림(고무신, 짧은 한복), 풍습이 다르다.
- ⑨ 기타)-백두산, 금강산, 압록강, 깨끗한 평양거리, 간첩, 이승복 어린이, 나쁜곳 무서운 곳, 빨간색, 지하자원, 북한이 없으면 좋겠다 등등.

‘이질적 요소’ 13.4%, ‘6·25전쟁’ 10.2%, ‘기타’ 9.9% 순으로 답하였다.

〈표24-1〉와 〈표24-2〉를 종합하여 비교하면 〈그림〉에서 처럼 아동들은 ‘김일성·김정일’ 20.25%, ‘북한 동포들’ 20.2%, ‘6·25전쟁’ 13.6%, ‘공산당·공산주의’ 10.55%, ‘통일’ 10.25%, ‘기타’ 8%, ‘이질적 요소’ 7.05%, ‘3·8선·이산가족’ 5.25%, ‘북한군대’ 4.85% 순으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아동들의 반응경향을 보면 아동들은 북한사회를 떠올릴때 민족분단의 제 1원인으로 지적했던 김일성(김정일포함)을 제일 먼저 생각하였으며, 이어 그들의 표현을 빌면 김일성 부자의 통치밑에서 노동과 가난에 고생하고 있을 불쌍한 북한 동포를 생각하였다. 그리고 여섯번째로 응답한 기타항목에서 아동들은 북한을 매우 무서운 곳, 원수들이 사는 곳이라고 많이 답하여 북한사회에 대한 그들의 사고가 많이 경직되며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아동들은 북한사람들의 말씨나 옷차림등이 이상하다는 등 이질적인 부분도 적지 않게 지적하였다.

1순위로 응답한 것만을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표24-1참조) 북한사회를 떠올릴 때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는 김일성·김정일(41.3%)과 북한동포들(17.0)을, 남자는 김일성·김정일(39.1)과 6·25전쟁(21.1)이라고 응답하였다. 성별에 따른 의미있는 차는 보이지 않고 있다. 지역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김일성부자에는 시(41.4)와 읍(43.3)이, 북한동포에는 읍(18.9)이, 6·25전쟁에는 면(18.5)이 큰 반응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김일성 부자에 회사원(57.1)과 노동(46.9)이 공무원(32.1)에 비해, 6·25전쟁에는 상업·서비스업(19.3)과 공무원(18.9)이 어업(6.7)에 비해 높은 반응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북한동포들에는 상업·서비스업(21.4)이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고 반면 회사원(4.8)이 가장 적은 응답을 하였다. 직업별 유의한 차는 없다.

8) 북한에 대한 지식원

북한에 대한 지식을 아동들은 주로 어디서 얻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에

〈表 24-1〉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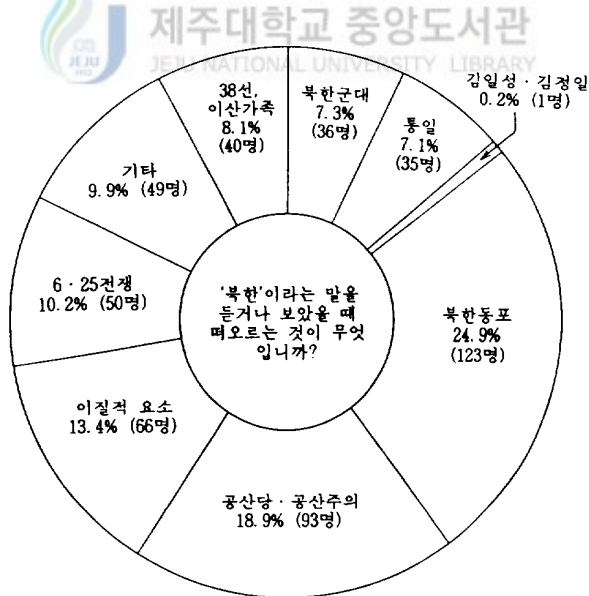
(* P<0.05)

변인	변인구분	변인성비(%)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100.0 (582)				40.3 (234)	17.0 (99)	13.4 (78)	15.5 (90)	2.2 (13)	2.4 (14)	2.4 (14)	0.7 (4)	6.1 (36)
성별	남	50.5 (294)	13.26	12	0.3501	39.1 (115)	21.1 (62)	11.9 (35)	13.9 (41)	2.4 (7)	2.8 (8)	2.0 (6)	0.3 (1)	6.5 (19)
	여	49.5 (288)				41.3 (119)	12.3 (37)	14.9 (43)	17.0 (49)	2.1 (6)	2.1 (6)	2.8 (8)	1.0 (3)	5.9 (17)
지역별	시	31.1 (181)	43.02	24	* 0.0099	41.4 (75)	16.6 (30)	13.9 (25)	13.8 (25)	2.8 (5)	1.7 (3)	1.7 (3)	1.7 (3)	6.6 (12)
	읍	37.3 (217)				43.3 (94)	16.1 (35)	12.0 (26)	18.9 (41)	0.9 (2)	3.2 (7)	2.8 (6)	0.5 (1)	2.3 (5)
	면	31.6 (184)				35.3 (65)	18.5 (34)	14.7 (27)	13.0 (24)	3.3 (6)	2.1 (4)	2.7 (5)		10.3 (19)
직업별	농업	32.8 (191)	96.24	84	0.1704	39.3 (75)	18.8 (36)	12.0 (23)	14.1 (27)	2.6 (5)	3.1 (6)	2.1 (4)	0.5 (1)	7.4 (14)
	상업·서비스업	24.9 (145)				37.2 (54)	19.3 (28)	11.7 (17)	21.4 (31)	2.1 (3)	2.8 (4)	1.4 (2)		4.2 (6)
	어업	7.7 (45)				35.6 (16)	6.7 (3)	22.2 (10)	17.8 (8)	4.4 (2)	2.2 (1)	4.4 (2)		6.6 (3)
	공무원	9.1 (53)				32.1 (17)	18.9 (10)	9.4 (5)	18.9 (10)			1.9 (1)	3.8 (2)	15.1 (8)
	회사원	7.2 (42)				57.1 (24)	14.3 (6)	7.1 (3)	4.8 (2)	2.4 (1)	2.4 (1)	4.8 (2)	2.4 (1)	4.8 (2)
	축산업	1.7 (10)				40.0 (4)	30.0 (3)	20.0 (2)				10.0 (1)		
	노동	11.0 (64)				46.9 (30)	12.5 (8)	20.3 (13)	14.1 (9)	3.1 (2)		1.6 (1)		1.6 (1)
	기타	5.5 (32)				43.8 (14)	15.6 (5)	15.6 (5)	9.4 (3)		6.3 (2)	3.1 (1)		6.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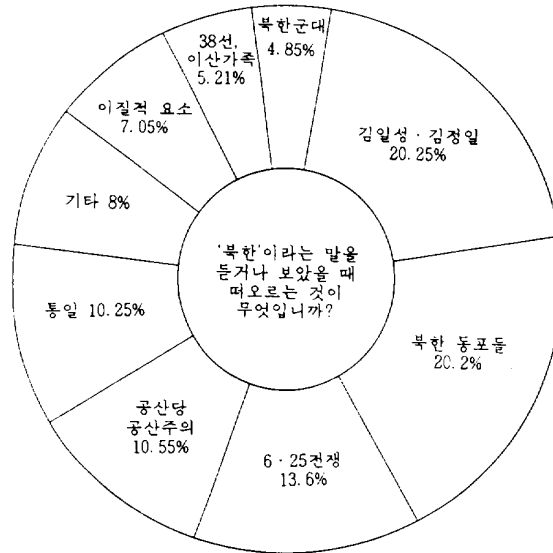
〈그림 20-1〉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 (1순위)



〈그림 20-2〉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 (2순위)



〈그림 20-3〉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종합)



대한 지식(정보)을 주로 무엇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까?” (25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학교선생님 ② 가족·친척 ③ 텔레비전·라디오 ④ 신문 ⑤ 어린이 잡지 ⑥ 기타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25>에 나타난 것처럼 ‘텔레비전·라디오’ 75.3%, ‘학교선생님’ 11.4%, ‘기타’ 6.2%, ‘어린이 잡지’ 3.4%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아동들은 매스컴(75.3)과 학교선생님(11.4)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는데, 그 중에서도 텔레비전·라디오 등의 매스컴의 영향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실적으로 아동들이 대중매체나 각종서적을 통하여 인식하고 있는 북한과 교과서, 학교선생님 등의 학교교육을 통하여 알고 있는 북한에 대한 실정과는 괴리되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점이 많은데, 이런 것이 누적될 경우 아동들로 하여금 불신감을 불러 일으켜 학교교육이 올바른 북한관 정립에 큰 방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최성환의 국민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²⁵⁾(TV를 통해 47.21%, 도덕시간을 통해 37.32%)와 비교하면

25) 최성환, 앞의 논문, pp. 40~41.

〈表 24-2〉 북한사회에 대한 인식

(* P<0.05)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분성비(%)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체	남	100.0 (493)	14.53	13	0.3375	0.2 (1)	10.2 (50)	7.1 (35)	24.9 (123)	18.9 (93)	8.1 (40)	7.3 (36)	13.4 (66)	9.9 (49)
	여	51.3 (253)				11.5 (29)	7.9 (20)	25.3 (64)	6.7 (7)	2.8 (7)			4.0 (10)	
지역별	시	29.4 (145)	36.94	26	0.0758		7.6 (11)	7.6 (11)	24.8 (36)	18.6 (27)	7.6 (11)	11.0 (16)	15.2 (22)	17.3 (25)
	읍	38.7 (191)				11.0 (21)	5.7 (11)	25.7 (49)	22.0 (42)	8.4 (16)	1.6 (3)	13.6 (26)	16.2 (31)	
	면	31.8 (157)				0.6 (1)	11.5 (18)	8.2 (13)	24.2 (38)	15.3 (24)	8.2 (13)	10.8 (17)	11.5 (18)	15.9 (25)
직업별	농업	33.7 (166)	124.93	91	0.0106		13.3 (22)	7.8 (13)	21.7 (36)	8.0 (30)	9.0 (15)	6.6 (11)	15.1 (25)	16.9 (28)
	상업·서비스업	23.9 (118)				5.9 (7)	7.6 (9)	29.7 (35)	16.1 (19)	6.8 (8)	5.1 (6)	15.3 (18)	18.7 (22)	
	어업	7.5 (37)				13.5 (5)		24.3 (9)	8.1 (3)	3.5 (5)	13.5 (5)	13.5 (5)	18.9 (7)	
	공무원	8.7 (43)					46.5 (20)	23.2 (10)	37.2 (16)	2.3 (1)	11.6 (5)	14.0 (6)	14.0 (6)	
	회사원	8.1 (43)				20.0 (8)	30.0 (13)	25.0 (10)	27.5 (11)	5.0 (2)	5.0 (2)	7.5 (3)	10.0 (4)	
	축산업	2.0 (10)					20.0 (2)	30.0 (3)	30.0 (3)					
	노동	11.0 (54)					13.0 (7)	5.6 (3)	24.1 (13)	14.9 (8)	13.0 (7)	11.1 (6)	11.1 (6)	16.7 (9)
	기타	5.1 (25)				4.0 (1)	4.0 (1)	12.0 (3)	28.0 (7)	12.0 (3)	8.0 (2)	4.0 (1)	12.0 (3)	20.0 (5)

10년전보다 지금의 아동들이 매스컴의 영향을 훨씬 크게 받으며, 임병춘의 대학생
을 중심으로 한 조사결과²⁶⁾(TV·라디오 44.4%, 서적 23.1%, 신문 22.0%, 통일안
보교육 3.7%)와 비교해도 본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아동들이 매스컴에서 받는 영향이

26) 임병춘, 앞의 논문, pp.180~1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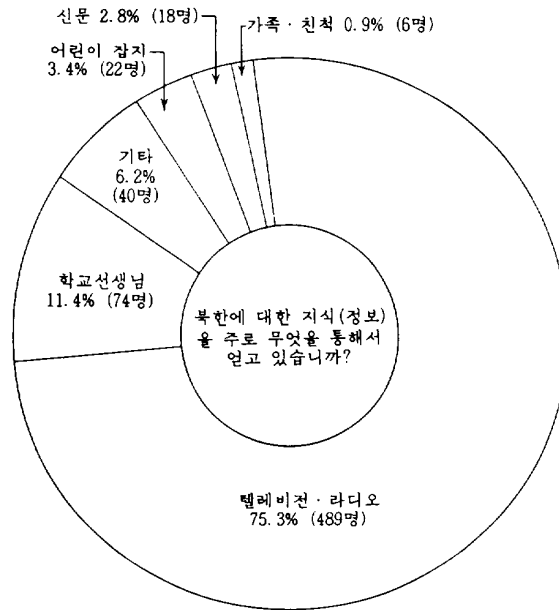
매우 큼을 알 수 있다.

〈표25〉의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과 지역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가 없으나 남자(75.7)와 시(79.0)가 북한에 대한 지식원으로 매스컴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도 유의한 차는 없으나, 북한에 대한 지식원으로 공무원(84.5)과 회사원(77.6)이 매스컴에 가장 높은, 농업(71.2)이 가장 낮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表 25〉 북한에 대한 지식원

변인	변인구분	변인성비(%)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00.0 (649)				11.4 (74)	0.9 (6)	75.3 (489)	2.8 (18)	3.4 (22)	6.2 (40)
성별	남	50.7 (329)	6.43	5	0.2669	9.1 (30)	0.9 (3)	75.7 (249)	3.6 (12)	4.3 (14)	6.4 (21)
	여	49.3 (320)				13.8 (44)	0.9 (3)	75.0 (240)	1.9 (6)	2.5 (8)	5.9 (19)
지역별	시	30.8 (200)	15.69	10	0.1088	8.5 (17)		79.0 (118)	2.5 (5)	3.0 (6)	7.0 (14)
	읍	38.4 (249)				11.6 (29)	2.4 (6)	71.9 (179)	3.2 (8)	3.6 (9)	7.2 (18)
	면	30.8 (200)				14.0 (28)		76.0 (152)	2.5 (5)	3.5 (7)	4.0 (8)
직업별	농업	32.7 (212)	34.22	35	0.5051	15.1 (32)	1.4 (3)	71.2 (151)	2.4 (5)	1.9 (4)	8.0 (17)
	상업·서비스업	24.2 (157)				10.2 (16)	0.6 (1)	76.4 (120)	2.5 (4)	6.4 (10)	3.8 (6)
	어업	8.0 (52)				11.5 (6)		76.9 (40)	5.8 (3)		5.8 (3)
	공무원	8.9 (58)				3.4 (2)		84.5 (49)		5.2 (3)	6.9 (4)
	회사원	7.6 (49)				14.3 (7)	2.0 (1)	77.6 (38)	2.0 (1)		4.1 (2)
	축산업	1.7 (11)				18.2 (2)		72.7 (8)		9.1 (1)	
	노동	11.2 (72)				8.2 (6)		76.7 (56)	5.5 (4)	2.7 (2)	6.8 (5)
	기타	5.7 (37)				8.1 (3)	2.7 (1)	73.0 (27)	2.7 (1)	5.4 (2)	8.1 (3)

〈그림 21〉 북한에 대한 지식원



9) 북한 관련 교육자료 실태

교육현장에서의 북한 및 공산국가에 관한 교육자료의 비치정도와 활용도를 간접적으로나마 알아보기 위하여 “북한이나 공산국가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학교에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26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대단히 많다 ② 많이 있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조금 있다 ⑤ 거의 없다 등 다섯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26>에서 나타난 것처럼 ‘보통이다’ 35.2%, ‘거의 없다’ 30.8%, ‘조금 있다’ 24.6%, ‘많이 있는 편이다’ 7.7%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아동들은 ‘없다’에 55.4%, ‘보통이다’에 35.2%, ‘있다’에 9.4% 순으로 응답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아동들의 반응경향은 학교교육에서 북한 또는 통일과 관련된 교육을 함에 있어 그 효율적인 지도와 교육성과를 올리는데 큰 장벽이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비슷

한 내용의 질문으로 선행연구된 최성환 조사²⁷⁾에서는 '없다' 47.42%, '보통이다' 37.12%, '많다' 15.47% 순으로 반응을 나타내어, 지금의 교육현장모습은 10년전과 비교해 볼 때 자료의 비치와 활용면에서 거의 개선이 안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26〉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과 지역별에 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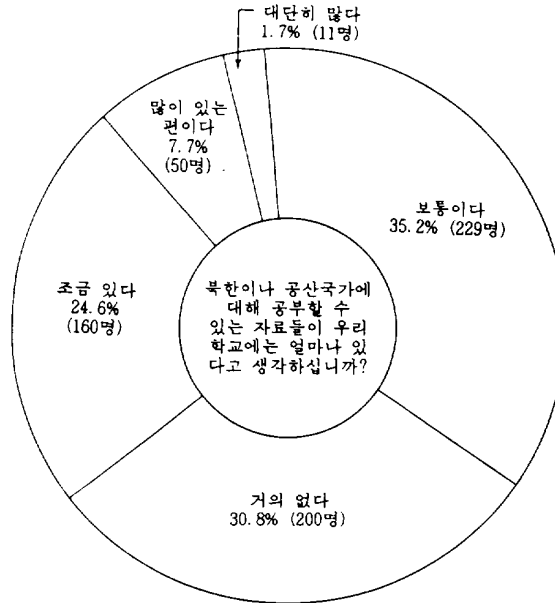
〈表 26〉 북한관련 교육자료 실태

(* P<0.05)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체		100.0 (650)				1.7 (11)	7.7 (50)	35.2 (229)	24.6 (160)	30.8 (200)
성별	남	50.5 (328)	0.86	4	0.9296	1.8 (6)	7.6 (25)	35.7 (117)	23.2 (76)	31.7 (104)
	여	49.5 (322)				1.6 (5)	7.8 (25)	34.8 (112)	26.1 (84)	29.8 (96)
지역별	시	30.9 (201)	7.25	8	0.5103	1.5 (3)	6.0 (12)	34.3 (69)	26.4 (53)	31.8 (64)
	읍	38.2 (248)				1.6 (4)	10.1 (25)	36.3 (90)	20.2 (50)	31.9 (79)
	면	30.9 (201)				2.0 (4)	6.5 (13)	34.8 (70)	28.4 (57)	28.4 (57)
직업별	학업	32.6 (212)	46.85	28	* 0.0142		5.7 (12)	34.4 (73)	25.9 (55)	34.0 (72)
	상업·서비스업	24.5 (159)				1.9 (3)	6.9 (11)	33.3 (53)	28.9 (46)	28.9 (46)
	어업	8.0 (52)				1.9 (1)	9.6 (5)	34.6 (18)	19.2 (10)	34.6 (18)
	공무원	8.9 (58)				1.7 (1)	12.1 (7)	24.1 (14)	15.5 (9)	46.6 (27)
	회사원	7.5 (49)				2.0 (1)	14.3 (7)	32.7 (16)	22.4 (11)	28.6 (14)
	축산업	1.7 (11)				9.1 (1)		9.1 (1)	4.5 (5)	36.4 (14)
	노동	11.1 (72)				4.2 (3)	6.9 (5)	51.4 (37)	19.4 (14)	18.1 (13)
기타	5.7 (37)	2.7 (1)	8.1 (3)	45.9 (17)	27.0 (10)	16.2 (6)				

27) 최성환, 앞의 논문, pp. 41~42.

〈그림 22〉 북한관련 교육자료 실태



라서는 유의한 차 없이 비슷한 수준에서 '없다'에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시 지역이 58.2%로 약간 더 높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공무원(62.1)과 농업(59.9)이 '없다'에 높은 반응을, 노동(37.5)과 기타직업(43.2)이 낮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3. 국가관

국가가 무엇이나 하는 것은 각자의 정치사상과 이념에 입각해서 국가를 보는 눈 즉 국가관 여하에 달려 있다. 이러한 점에서 국가관의 문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국가사회라는 공동체의 중요성과 이러한 공동체의 한 구성원인 아동들의 국가관을 알아보기 위하여 4개 문항이 설정되었는데, 국가의 자유선택 가능시

태도, 제2의 6·25 재발시 태도,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우리 나라의 당면 문제점 인식 등의 내용을 질문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국가의 자유선택 가능시 태도

국가의 자유선택이 가능할 경우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 행동경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만약 국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27번)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지금처럼 우리 나라 ②우리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③우리 나라보다 잘 살진 않지만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 ④우리 나라보다 잘 살고 민족도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 27>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 나라보다 잘 살고 민족도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 40.6%, ‘지금처럼 우리 나라’ 24.6%, ‘우리 나라보다 잘 살진 않지만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 23.0%, ‘우리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11.8%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전체응답자 중 24.6%만이 지금의 우리 나라에 만족하고 있으며, 전체응답자의 75.4%는 분단되지 않거나 우리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를 원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잘 사는 나라(11.8)보다 민족이 분단되지 않은 나라(23.0)에 더 큰 반응을 나타내어, 아동들이 민족의 분단에 대해 큰 아쉬움을 갖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지금의 우리 나라에 답한 응답율이 적다는 것은 아동들이 국가관에 대한 확실한 신념의 부족으로 인한 정통성이 결여되었음을 말해준다. 이와 유사한 질문 내용의 선행연구 최성환의 조사²⁸⁾, ‘대한민국의 어린이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에서 80.72%의 아동들이 한국인으로서 매우 높은 긍지를 보여 지금의 아동들의 국가관 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준다. 그리고 임병춘의 대학생을 중심으로 조사한 ‘통일의식과 통일문제인식의 세방향’에 관한 연구²⁹⁾에서 분단한국에 태어난 것

28) 최성환, 위의 논문, pp. 47~48.

29) 임병춘, 앞의 논문, pp. 178~179.

에 대하여서는 80.6%가 불행하다고 인식하고, 또 同一 연구³⁰⁾에서 71.9%가 국가를 자유선택할 수 있을 경우 더 잘 사는 나라에 살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본연구 조사 결과와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지금의 국민학생이나 대학생 모두 공통적으로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에 대해 불행하다고 크게 인식하고 있어 우려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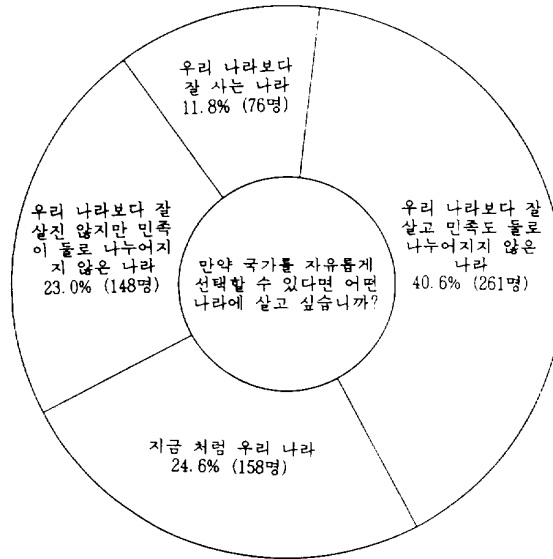
〈表 27〉 국가의 자유선택 가능시 태도

(* P<0.05)

변인	변인 구분	변인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체	100.0 (643)				24.6 (158)	11.8 (76)	23.0 (148)	40.6 (261)
성별	남	50.9 (327)	7.88	3	* 0.0485	23.9 (78)	15.3 (50)	22.6 (74)	38.2 (125)
	여	49.1 (316)				25.3 (80)	8.2 (26)	23.4 (74)	43.0 (136)
지역별	시	30.8 (198)	14.20	6	* 0.0275	23.7 (47)	6.1 (12)	24.2 (48)	46.0 (91)
	읍	38.6 (248)				23.8 (59)	16.1 (40)	24.6 (61)	35.5 (88)
	면	30.6 (197)				26.4 (52)	12.2 (24)	19.8 (39)	41.6 (82)
직업별	농업	32.8 (211)	30.97	21	0.0742	28.0 (59)	9.5 (20)	21.3 (45)	41.2 (87)
	상업·서비스업	24.3 (156)				17.9 (28)	12.2 (19)	27.6 (43)	42.3 (66)
	어업	7.8 (50)				26.0 (13)	24.0 (12)	24.0 (12)	26.0 (13)
	공무원	9.0 (58)				29.3 (17)	8.6 (5)	10.3 (6)	51.7 (30)
	회사원	7.3 (47)				19.1 (9)	8.5 (4)	31.9 (15)	41.4 (19)
	축산업	1.7 (11)				36.4 (4)	27.3 (3)	18.2 (2)	18.2 (2)
	노동	11.4 (73)				28.8 (21)	12.3 (9)	20.5 (15)	38.4 (28)
	기타	5.8 (37)				18.9 (7)	10.8 (4)	27.0 (10)	43.2 (16)

30) 임병춘, 위의 논문, p. 179.

〈그림 23〉 국가의 자유선택 가능시 태도



〈표27〉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과 지역별 모두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성별로는 여자가 남자보다 지금의 우리나라와 민족이 분단되지 않은 나라에 약간 높은 반응을 나타내었다. 지역별로는 '지금처럼 우리 나라'에는 26.4% 이, '우리 나라보다 잘 살진 않지만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에는 24.6% 이 약간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부모의 직업별로는 유의한 차는 없으나 공무원(29.3)과 노동(28.8)이 '지금처럼 우리 나라'에, 회사원(31.9)과 상업·서비스업(27.6)이 '우리 나라보다 잘 살진 않지만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에 높게 반응하였다.

2) 제2의 6·25 재발시 태도

국가의 위기에 취하는 행동으로 국가와 민족에 대한 충성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의 6·25 재발시 행동에 대한 아동들의 의지수준을 알아보

기 위하여 “어른이 되었을때 만약 6·25와 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28번)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 ②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 ③ 안전한 곳으로 피난가겠다 ④ 그때 가 봐서 행동하겠다 등 네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28>에 나타난 것처럼 ‘그때 가봐서 행동하겠다’ 44.5%,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 37.1%, ‘안전한 곳으로 피난가겠다’ 14.4%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아동들은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37.1)보다 ‘상황에 따라 행동하겠다’ 또는 ‘도피하겠다’(63.0)에 훨씬 높은 반응을 나타내어, 이러한 상황조건적이고 이 중구조적인 아동들 반응 역시 아동들이 국가관에 대한 확실한 가치관이 없이 혼란상태에 빠져있음을 말해준다. 불확실한 국가관은 한민족의 자긍심이나 자신감의 부족으로 나타나서 통일을 위해 필요한 민족일체감의 형성을 저해하게 되며 통일에 대한 부정적·소극적·현실도피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질문으로 선행연구된 최성환의 조사³¹⁾에서는 74.43%가 전쟁에 즉각 참전하겠다고 답함으로써 지금의 아동들 (37.1%)보다 행동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의식적인 부분이 훨씬 강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대학생들 중심으로 조사한 서창배의 조사³²⁾에서는 본조사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대학생이 약간 더 소극적이고 유동적인 모호한 반응을 나타내었다.

<표28>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에는 남자(49.7)가 여자(24.1)보다 훨씬 적극적 태도를 보여주었다. 지역별에서는 읍과 면이 38.2%로서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에 약간 높은 반응을 나타내고 있으나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고 있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P < 0.001$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에 어업(44.0)과 농업(40.5)

31) 최성환, 앞의 논문, pp. 66~67.

32) 서창배, 앞의 논문, p. 267.

이 가장 많은, 그리고 공무원 (24.1)이 가장 적은 응답을 하였다.

3)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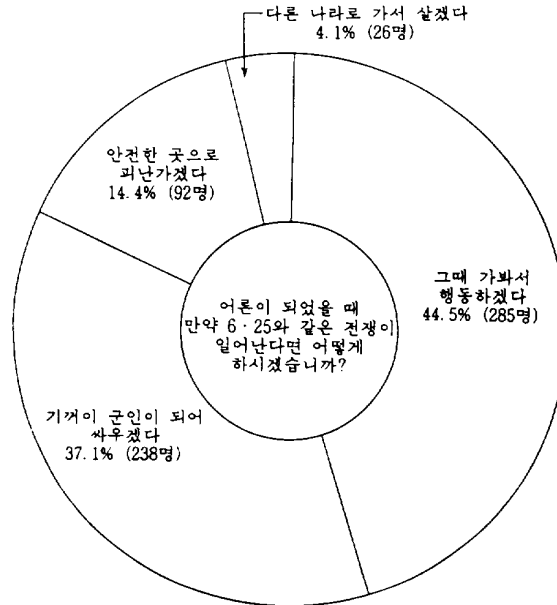
통일교육은 남북한 두 체제의 선택문제를 다루는 교과목이고, 그것은 또한 우리

〈表 28〉 제2의 6·25재발시 태도

(**** P<0.001)

변인	변인 구분	변인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전체	체	100.0 (641)				37.1 (238)	4.1 (26)	14.4 (92)	44.5 (265)
성별	남	50.9 (326)	48.00	3	**** 0.0000	49.7 (162)	4.3 (14)	9.8 (32)	36.2 (118)
	여	49.1 (315)				24.1 (76)	3.8 (12)	19.0 (60)	53.0 (167)
지역별	시	30.6 (196)	3.34	6	0.7646	34.7 (68)	3.6 (7)	16.8 (33)	44.9 (88)
	읍	38.4 (2468)				38.2 (94)	3.3 (8)	13.4 (33)	45.1 (111)
	면	31.0 (199)				38.2 (76)	5.5 (11)	13.1 (26)	43.2 (86)
직업별	농업	32.8 (210)	48.98	21	**** 0.0005	40.5 (85)	4.3 (9)	15.2 (32)	40.0 (84)
	상업·서비스업	24.2 (155)				35.5 (55)	1.3 (2)	15.5 (24)	47.7 (74)
	어업	7.8 (50)				44.0 (22)	8.0 (4)	8.0 (4)	40.0 (20)
	공무원	9.0 (58)				24.1 (14)	10.3 (6)	5.2 (3)	60.3 (35)
	회사원	7.3 (47)				38.3 (18)		23.4 (11)	38.3 (18)
	축산업	1.7 (11)				18.2 (2)	27.3 (3)	9.1 (1)	45.5 (5)
	노동	11.4 (73)				0.4 (28)	1.4 (1)	12.3 (9)	47.9 (35)
	기타	5.8 (37)				37.8 (14)	2.7 (1)	21.6 (8)	37.8 (14)

〈그림 24〉 제2의6·25재발시 태도



의 생존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사회가 아무리 개방화되고 민주화된다고 해도 우리의 자유민주체제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만은 지켜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북한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남한사회)가 공산주의(북한사회)보다 더 좋다는 것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29번) 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자신있게 할 수 있다 ② 조금 할 수 있다 ③ 잘 모르겠다 ④ 조금 자신이 없다 ⑤ 전혀 자신이 없다 등 다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29>에 나타난 것처럼 ‘자신있게 할 수 있다’ 41.9%, ‘조금 할 수 있다’ 27.2%, ‘잘 모르겠다’ 16.8%, ‘조금 자신이 없다’ 9.5%, ‘전혀 자신이 없다’ 4.7%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전체응답자의 69.1%가 민주주의 우월성 인식에 있어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는 있으나, 교육적 성과의 측면에서 결코 만족한 결과라고 볼

수 없으며,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아동들도 30.9%가 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아동들의 반응경향은 공산주의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적 뒷받침이 확고히 다지지 않은 상황아래 구체적이고도 입증된 자료의 제시도 없이 북한 공산당에 대한 적개심만 불러일으키는 강의 및 주입식 학습이 이루어진데 그 원인이 있을 것이다. 이와 동일한 문항으로 선행연구된 최성환의 조사결과³³⁾(자신있다 84.33)와 비교하면 지금의 아동들이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약함을 알 수 있다.

〈표29〉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여자(71.2)가 남자(67.0)보다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이 약간 강하나 유의한 차는 없다. 지역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에 있어 시(75.2)가 가장 높은, 읍(63.5)이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는 없으나 민주주의 우월성 인식에 공무원(81.0)과 상업·서비스업(76.2)이 가장 높은 긍정적 반응을, 노동(57.5)과 어업(62.0)이 가장 낮은 긍정적 반응을 나타내었다.

4) 우리 나라의 당면 문제점 인식

아동들이 인식하는 우리 나라의 당면 문제점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지금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30번)라는 질문을 하였고 그에 대한 답항으로 ① 자원부족 ② 인구증가 ③ 환경오염 ④ 여러 가지 범죄발생 ⑤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⑥ 기타 등 여섯 가지를 제시하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표30〉에 나타난 것처럼 ‘환경오염’ 36.6%,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21.7%, ‘여러 가지 범죄발생’ 20.5%, ‘인구증가’ 9.8% 순으로 응답하였다. 즉, 아동들은 우리 나라의 당면문제점으로 북한의 남침위협(21.7)보다 환경오염(36.6)을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질문내용의 선행연구 최성환

33) 최성환, 앞의 논문, pp42~43.

의 조사³⁴⁾에서 우리 나라의 당면한 위협적인 문제점으로 지적한 북한의 남침위협 36.8%에 비하면 본연구에서 조사대상으로한 국민학교 아동들이 우리 나라 군사력에 대한 신뢰도에는 낮은 반응을 보이면서도 북한의 남침위협을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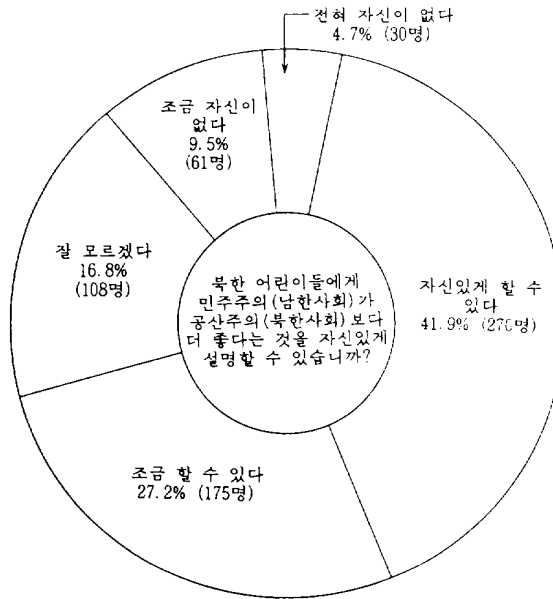
〈表 29〉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 P<0.0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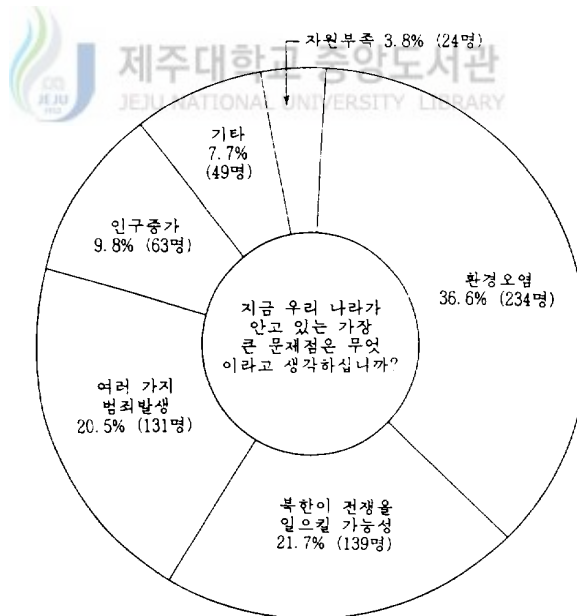
변인	변인 구분	변인 구성비 (%)	X ²	df	유의도	반응 구분				
						①	②	③	④	⑤
전	체	100.0 (644)				41.9 (270)	27.2 (175)	16.8 (108)	9.5 (61)	4.7 (30)
성	남	50.9 (328)	8.84	4	0.0652	39.6 (130)	27.4 (90)	16.5 (54)	9.5 (31)	7.0 (23)
	여	49.1 (316)				44.3 (140)	27.4 (85)	16.5 (54)	9.5 (30)	7.0 (7)
지	시	30.7 (198)	18.10	8	* 0.0205	52.0 (103)	23.2 (46)	11.1 (22)	8.6 (17)	5.1 (10)
	읍	38.4 (247)				36.4 (90)	27.1 (57)	19.4 (48)	11.3 (28)	5.7 (14)
	면	30.9 (199)				38.7 (77)	31.2 (62)	19.1 (38)	8.0 (16)	3.0 (6)
직	농업	33.1 (213)	30.33	28	0.3478	38.0 (81)	28.2 (60)	19.7 (42)	8.9 (19)	5.2 (11)
	상업·서비스업	24.2 (156)				47.4 (74)	28.8 (45)	15.4 (24)	6.4 (10)	1.9 (3)
	어업	7.8 (50)				40.0 (20)	22.0 (11)	24.0 (12)	12.0 (6)	2.0 (1)
	공무원	9.0 (58)				51.7 (30)	29.3 (17)	6.9 (4)	8.6 (5)	3.4 (2)
	회사원	7.1 (46)				41.3 (19)	26.1 (12)	13.0 (6)	15.2 (7)	4.3 (2)
	축산업	1.7 (11)				45.5 (5)	18.2 (2)	9.1 (1)	18.2 (2)	9.1 (1)
	노동	11.3 (73)				31.5 (23)	26.0 (19)	20.5 (15)	11.0 (8)	11.0 (8)
	기타	5.8 (37)				48.6 (18)	24.3 (9)	10.8 (4)	10.8 (4)	5.4 (2)

34) 최성환, 위의 논문, pp. 52~53.

〈그림 25〉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



〈그림 26〉 우리 나라의 당면 문제점 인식



〈表 30〉 우리 나라의 당면 문제점 인식

변인	변인구분	변인구성비(%)	X ²	df	유의도	반응구분					
						①	②	③	④	⑤	⑥
전체		100.0 (640)				3.8 (24)	9.8 (63)	36.6 (234)	20.5 (131)	21.7 (139)	7.7 (49)
성별	남	50.6 (324)	15.74	5	0.0076	5.2 (17)	13.3 (43)	36.1 (117)	17.3 (56)	21.3 (69)	6.8 (22)
	여	49.4 (316)				2.2 (7)	6.3 (20)	37.0 (117)	23.7 (75)	22.2 (70)	8.5 (27)
지역별	시	30.8 (197)	12.07	10	0.2803	5.1 (10)	8.6 (17)	37.1 (73)	19.8 (39)	4.4 (48)	5.1 (10)
	읍	38.3 (245)				3.7 (9)	10.6 (26)	36.7 (90)	23.3 (57)	16.3 (40)	9.4 (23)
	면	30.9 (198)				2.5 (5)	10.1 (20)	35.9 (71)	17.7 (35)	25.8 (51)	8.1 (16)
직업별	농업	33.0 (211)	40.33	35	0.2463	3.8 (8)	11.4 (24)	36.5 (77)	18.5 (39)	22.7 (48)	7.1 (15)
	상업·서비스업	24.1 (154)				1.3 (2)	9.1 (14)	37.7 (58)	22.1 (34)	20.8 (32)	9.1 (14)
	어업	7.8 (50)				10.0 (5)	6.0 (3)	34.0 (17)	14.0 (7)	28.0 (14)	8.0 (4)
	공무원	9.1 (58)				3.4 (2)	13.8 (8)	39.7 (23)	15.5 (9)	25.9 (15)	1.7 (1)
	회사원	7.3 (47)				2.1 (1)	12.8 (6)	21.3 (10)	34.0 (16)	14.9 (7)	14.9 (7)
	축산업	1.7 (11)					9.1 (1)	54.5 (6)	18.2 (2)	9.1 (1)	9.1 (1)
	노동	11.3 (72)				5.6 (4)	9.7 (7)	41.7 (30)	18.1 (13)	20.8 (15)	4.2 (3)
	기타	5.8 (37)				5.4 (2)		35.1 (13)	29.7 (11)	18.9 (7)	10.8 (4)

〈표30〉에 나타난 전체반응결과를 배경변인별로 분석해보면 성별에 따라서는 P < 0.05 수준에서 유의한 차를 보이고 있는데, 남녀 거의 비슷한 수준에서 북한의 남침위협을 우리 나라의 당면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있다. 지역별과 부모의 직업별에

따라서는 우리 나라의 당면문제점으로 북한의 남침위협을 면(25.8)이 읍(16.3)에 비해, 그리고 어업(28.0)과 공무원(25.9)이 회사원(14.9)과 기타직업(18.9)에 비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는 보이지 않고 있다.



Ⅲ. 통일교육의 새방향 모색

앞장에서 논의된 국민학교 6학년 아동을 대상으로한 통일의식조사에서 발견되어지는 두드러진 특징은 첫째, 통일에 대한 염원이나 가능성, 당위성에 있어서는 높은 인식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또 그것 못지않게 통일문제를 경원시하거나 무관심하는, 참으로 모순된 현상을 보였다. 둘째, 북한사회에 대한 경직된 사고에도 불구하고 북한 동포에 대해 그들이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는 점에서는 변함없는 동족의식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과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는 면과는 또 다른 거리감이 존재하고 있었다. 셋째, 아직 국가에 대한 가치관이 확립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아동들의 반응경향은 분단이후 우리 통일교육이 분단고착화 교육의 틀을 벗어나지 못한 채 정태적이고 폐쇄적인 성격을 띠어왔음을 입증한다.

본장에서는 위의 문제점을 해소하여 통일세대들로 하여금 올바른 통일관 및 확고한 통일의지를 심어주고 나아가 민족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는 바, 이를 위해 먼저 통일교육의 재정립 필요성과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어 통일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통일교육의 재정립 필요성

최근 한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통일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첫째, 이데올로기의 대립시대가 가고 경제 경쟁의 신국제질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사회에 있어서 정치·군사적인 면이나 이데올로기의 대립에서 오는 긴장감이 완화되고 화해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반면에, 국가간에 새로운 경제적 협력과 경쟁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가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가 이기주의에 기초한 경제블럭화

를 초래하고 있으며, 냉전체제의 종식과 미 러간의 화해분위기 조성 및 군비축소로 인해 한반도의 긴장상태가 점차적으로 완화되고 있고, 구 소련과 동유럽의 개혁과 개방으로 인해 북한의 부분적 개방 가능성과 남북 교류의 증진에 대한 전망이 밝아지고 있다.

둘째,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신질서가 대두되고 있다는 점이다. 경제권역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의 재편성과 더불어 동북아권 지역에서의 냉전체제가 완화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지역내 경제협력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개방, 일본의 재무장과 동북아시아에서의 정치·경제 주도권 행사등의 변화는 한반도의 통일 여건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내부 상황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러시아를 비롯한 기존의 군사 경제 협력국가들의 사회주의의 포기와 우호가격, 구상무역철폐 등 국가간 교역상의 변화로 말미암아 경제협력 등의 이유로 일본과 미국 등 새로운 경제협력 대상국과의 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고 남북한간의 경제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

우리도 북한 경제 개발 사업에 적극 참여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며, 해외 학술 종교 모임, 스포츠를 통한 접촉과 교류가 증대되고 북한의 TV, 신문을 일반에 공개하는 사항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최근 국제질서의 재조정, 남북간의 대화와 교류의 진전 등은 한반도의 통일환경에 변화를 가져오고 있으며, 따라서 기존의 통일교육도 그 방향을 재정립할 필요가 증대되고 있다.

통일교육의 재정립 필요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⁵⁾

1)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 및 경제적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국제간의 관계에 대비하여 통합된 민주국가로 동북아 및 세계질서의 변화에 대처해나갈 민족단위의 대

35) 백중억(1992),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 방향 모색",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pp. 99~120.

비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

2) 남북한간에는 체제와 이념의 대립속에 전쟁을 경험하였으며, 그동안 갈등과 불신이 쌓이고 이질화현상이 심화되어 갔다. 따라서 통일전후의 사회적 혼란과 인식의 전환에 대비하고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

3) 남북합의서 내용실천과 평화공존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북한에 대한 새로운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2. 통일교육의 문제점

통일에 대한 우리의 교육방침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그 강도를 달리하면서 1948년 정부수립이후 1980년대초반까지 반공으로 일관해 왔다. 이러한 반공일변도인 우리의 통일교육에 대해 오래전부터 많은 사람들은 문제점을 지적하여 왔으나, 5 16이후 4반세기동안 계속된 군사정권 아래서는 반공교육에 의의를 제기하는 비판은 수용되기 어려웠다. 그러던 것이 사회전반에 대한 민주화가 추진되면서 남북한문제,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사회의식에도 전환을 촉구하게 되어 통일교육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1980년대 중반이후 통일의 의지와 북한 및 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이 조화를 이루는 새로운 국민정신교육의 필요성이 대두하게 되었고 그것은 제5차 교육과정에서 반공교육이라는 용어대신 통일 안보교육이라는 용어를 정식으로 채택케 하였다. 즉, 현행 교육과정의 통일 안보교육은 그 어느때보다도 통일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반공교육이 가진 이데올로기적 편향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한편 문화전통을 공유하고 언젠가는 통일국가를 이루어 살아야 할 동족으로서의 북한동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반영코자 하였다.³⁶⁾ 그러나 현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갖고 있다.

36) 교육부(1993), 「통일교육지도자료」, 장학자료 제89호, p. 14.

1) 통일교육의 명확한 지침이나 계획, 통일교육의 목표와 내용, 그리고 통일교육 지원 관리 체제등에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는 점이다.³⁷⁾

그리고 통일교육은 범교과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과목에만 편중되어 실시함으로써 기대하는 만족한 성과를 얻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체제의 비과학성, 교육자료의 비효율성, 관점적 교육³⁸⁾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이것은 국민학교부터 시작하여 대학에 이르기까지 공동적인 문제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의 원인으로는 단편적이거나 구체성을 결여한 정책, 학사행정당국의 이해와 협조 부족, 연구비와 자료지원의 비연속성, 대중의 무관심, 전후 세대의 급증, 사상적 유동, 민간 및 재계인사들의 이해부족과 무지, 불신 풍조, 북한의 심리적 강화, 풍요로 인한 안일한 사고촉진 등을 들 수 있다.³⁹⁾

2) 통일교육의 내용이 객관적이지 못한데다 지나치게 단선적이고 같은 주제가 단순반복되고 있다. 또 최근의 통일관련 매스컴 자료에 비해 훨씬 진부하다.

북한을 과장되게 천편일률적인 사회로 본다든지 북한의 사회제도나 생활방식을 부정적인 측면에서만 평가하는 것, 그리고 현 시대상황과 거리가 먼 내용을 가지고 통일교육을 한다는 것은 통일교육의 객관성을 저해함은 물론 오히려 이질감만을 부추기게 될 것이다.

3) 종래의 학교교육은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공산주의의 비판이라기보다 남침의 경험을 토대로한 적개심 고취와 단편적인 북한의 실상을 폭로하는 반공교육차원을 벗어나지 못한 경험주의적이고 감상적이며 주관적 입장에서 반공교육을 하는 경향이 많았다.

37) 박정춘(1992),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민족통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제주: 제주대교육대학원), p. 49.

38) 김호길(1988), "국제화시대의 통일교육과 이념교육", 부산외국어대학 국제문제연구소, "국제문제논총", p. 195.

39) 김호길, 같은 글, p. 159.

이러한 통일교육은 6·25를 직접 경험하지 못한 전후세대들에게는 동기유발과 흥미유지가 어렵고 경우에 따라서는 논리적 사고와 형식적 사고기에 접어든 학생들에게 거부감까지 일으켜 그 수용도가 낮음으로써 통일의 의지를 길러주지 못 할뿐 아니라 편향적인 사고방식과 아울러 조국통일에 대한 두려움이나 비관적 인식을 고취시킬 우려가 많다. 제4·5차 교육과정으로 오면서 <표31>이 보여주듯 인지적 측면이 많이 강조되어져 오고 있어서 변화된 위상을 보이고 있긴 하나 아직도 북한과 공산당(공산주의)에 대한 경계심 내지 적개심을 강조하는 반면 통일에 대한 상상력, 논의방식, 논의절차, 통일방안 등에 대한 평가적 안목의 육성에는 소홀히 하여 오고 있다.

<表 31> 제4·5차 교육과정 도덕과 교과서 통일안보영역에서의 행동특성별 분석⁴⁰⁾

	인 지 적	정 의 적	행 동 적
제4차 교육과정	37.5%	45%	17.5%
제5차 교육과정	36.5%	44%	19.5%

4) 통일교육이 미래지향적이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볼때 현재의 통일교육은 장차 이루어질 통일 조국의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가능하게 될 민주시민(Democratic Citizen)의 육성내지는 남북대화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통일꾼의 배양이란 점에서는 부족한 면이 많다.⁴¹⁾

지금까지는 폐쇄되어왔던 북한의 경직사회도 점차 개방과 개혁의 물결을 타게 되면 실용적이고 전문테크노크라트 계층이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각분야에서 핵심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리라 예상되는데, 그때에 그들과 상대하여 합리적이고 과학

40) 고대만(1990), "국민학교 도덕교과서 통일안보영역의 내용분석", 한국 도덕·국민윤리학회, 도덕·국민윤리과 교육 제1권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41) 최인화,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 「통일문제연구」, p. 352.

적인 문제해결능력을 발휘하여 건전한 민주적 사고방식을 동원한다는 것은 통일조국건설을 위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교육의 과정에서도 통일조국의 성취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통일조국의 사회에서 능동적으로 기능하게 될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민주시민의식과 건전한 소양의 배양은 꼭 필요하다 할 것이다.

5) 통일교육의 전과정에 있어서 통일의 지주가 될 한국민족주의의 이념과 그 구체적인 실현방안들에 대한 논의가 유기적으로 학습되는 기회가 별로 없다는 점이다.⁴²⁾

‘통일문제’란 본질적으로 정치문제 이전의 것으로서 통일문제가 민족성원전체의 자주적 보편적 욕구충족을 가능케 하는 신념과 이념체계인 민족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 할 때 통일교육의 현장에서 민족의 정체성을 심각하게 탐색하고 규명하는 활동이 소홀히 된다면 이는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통일독일을 이룩하는 과정에서 동독과 서독이 상이한 정치 경제체제와 이념을 가지쳐 40여년을 버텨왔으나 결국은 게르만 독일민족의식속에서 하나로 합쳐졌다. 이는 역사적 사실은 민족주의야 말로 그 어떤 인위적인 정치체제나 이념보다 우월한 지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

6) 통일교육과 관련되는 유사개념이나 용어들이 확실한 구별없이 사용됨으로써, 교육현장에서의 사고의 혼란과 갈등을 낳고 있다. 이제는 냉전지향적인 용어(예 : 반공교육)보다는 민족통일지향적 용어로 전환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987년도 제5차 교육과정 개정 이후 초·중·고교에서의 반공교육이라는 용어가 통일안보교육이란 용어로 대체되었지만, 통일안보교육이란 용어도 이제는 7·7특별선언의 정신에 입각한 민족화합의 취지를 살리고 ‘통일’과 ‘안보’의 상충되는 측면을 해소하려면 이제부터는 ‘통일교육’이란 용어로 정착시켜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안보관련내용은 통일에 종속되는 개념으로 위치지음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왜냐

42) 최인화, 앞의 책, p. 54 참조.

하면 교육내외의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보다 적극적이고 진취적인 통일교육에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의미의 반공 안보교육을 같은 비중으로 고려하면 통일교육의 정립과 체계화에 혼돈이 야기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7) 마지막으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통일교육 담당교사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그 첫째는 교사들의 사고구조가 기존의 반공교육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교사 스스로가 이상으로서의 통일조국과 현실의 남북한 분단상황의 차이가 극복될 수 없다는 통일비관론자의 입장에 서는 경우가 많다. 둘째, 교사의 통일문제 관련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이다. 보다 심도 있는 통일 교육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충분한 자료 연구를 필요로 한다. 그러나 종래의 통일교육자료는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 전달차원의 단편적인 성격이 짙은 것이 많았다. 또한 북한 관련 간행물이나 통일문제 연구 서적의 경우 필자와 정보 부족 때문에 교사로 하여금 북한 관련 정보와 지식의 부족을 더욱 심화 시키고 관심 밖의 영역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셋째, 비판적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의 신장은 통일 교육의 현상에서도 핵심적으로 취급하여야 할 사항이나, 이에 관한 교수전략의 구사 기술이나 자료 활용법등에 대한 전문적 연구가 충분히 주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중, 고등학교의 경우는 국민윤리학 출신이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실시 하고 있지만(국민윤리학과 졸업생도 1981년 부터 배출 됨), 국민학교의 경우는 통일관련 내용에 대한 전문훈련을 받은 교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물론 통일원이나 교원 연수 과정을 통해서 보완이 이루어지기는 했겠으나 결코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3. 통일교육의 새 방향

이상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통일교육은 민족통합을 지향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통일교육을 통해서 육성하고자 하는 인간상을 한마디로 바람직한 통일조국의 이

념이나 그 선행단계(또는 중간단계)로서 '민족공동체'⁴³⁾의 이념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는 실천역량을 갖춘 인간이라 할 때⁴⁴⁾ 새로운 통일교육은 민족공동체 형성에 이바지하는, 그렇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통일에 이르도록 하여주는 곧 민족통합지향의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을 적으로 규정하던 사고를 과감히 버리고 통일을 이룩한 후 함께 살아가야 할 민족임을 인식하는 차원에서의 교육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국가를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적대감을 해소하고 남북한 주민이 민족공동체의 성원으로 화합하고 협력하여 나가지 않으면 안되며, 또한 통일 이후의 사회적 혼란과 인식의 혼란을 극복하고 민족공동체 속에서의 삶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민족 동질성 회복교육과 민족공동체 교육이 강조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북한을 보다 가깝게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현실에 대한 교육을 함에 있어 북한의 지배계층의 현실과 그 지배하에 살아가는 북한 주민들을 구분하여 북한의 현실을 사실 그대로 소개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올바른 비판능력을 함양하여 주는 것과 북한 주민들의 정당한 인권회복을 다양하게 요구하는 방향으로 교육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통일교육이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자는데 기여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남북한간에 상당히 진전된 이질화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요인을 분석하여 더이상의 이질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케 함으로써 민족의 동질성회복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통일교육은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체득케 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냉전의 한축이었던 소련과 동유럽이 다원주의 사회로 변화하고 있고, 공산주의를

43) 민족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민족공동체의 이념이란 민족성원으로 하여금 민족의 자결주의에 입각하여 주체적인 독립국가의 실현, 기본적 인권의 보장, 그리고 정의로운 복지사회실현을 지향하는 것을 말한다.

문용린,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전개 방향", 「통일문제연구」, p. 354.

44) 문용린, 앞의 글, p. 354.

포기함으로써 생기는 공백을 반공이 아닌 진정한 민족통일을 위한 교육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조국통일의 당위성을 체득케 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전통적 민족공동체 의식은 우리 민족을 한민족으로 통합시키는 토대가 되지만 분단이 길어지고 우리 생활이 운택해지면서 북한동포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필요성이 낮아질때 그 강도가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후세대들은 민족공동체의식을 경험해 본적이 없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통일교육은 일방적이고 주입적인 통일의 당위성 교육이 아니라 통일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내면화하고 가치화할 수 있는 교육이어야 한다.

3) 올바른 통일관을 정립시키는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 분단의 배경과 성격, 분단의 고통과 손실 등 통일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하게 하고, 오늘날 국내외적 상황과 조건에 대한 정확한 시각과 체계화된 견해를 갖출 수 있도록 통일교육이 행해져야 할 것이다. 특히 분단에 대한 교육에 있어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소련의 세계전략 일환으로 북한을 앞장 세워 공산정권을 북한에 세운 것에 기인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으나 국토분단에 대한 미국의 책임은 소상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점에 있어서도 당시의 상황을 잘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토분단 민족분단의 원인은 소련 미국 등 외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체내에도 있음을 지적해 주어야 한다. 그러한 역사적 사실을 정확히 이해시킴으로써 우리 민족 스스로 자각하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남북분단 문제는 현재 우리들의 정치, 경제, 사회생활 및 의식구조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바, 6·25전쟁, 민족의 이질화 문제, 이산가족 문제, 남북대결로 인한 민족적 에너지 낭비 문제 등은 민족분단이 그 근원이라고 하겠다.

민족분단과 관련하여 아동들에게 지도해야 할 방향은 다음과 같다.⁴⁵⁾

45) 김재현(1991), "국민학교 통일안보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경희대 교육대학원), p. 128.

- ① 민족분단의 교훈을 통해 민족 자주역량을 축적시킬 필요성을 인식시키고 나아가 통일외지를 함양하도록 지도한다.
- ② 분단의 과정과 원인에 대한 내용은 분단해결 실마리를 찾으려는 방향에서 지도한다.
- ③ 분단의 원인과 책임 소재의 규명은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을 구분하여 균형있게 취급하도록 한다.
- ④ 분단이야말로 전 민족의 비극임을 일깨워 주도록 한다.

4) 통일교육은 민주시민교육의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 시민 교육’이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환경 속에서 성장 생활해 온 사람들이 하나의 사회를 형성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민주적인 생활규범 등에 대한 교육으로서 통일교육의 바탕을 이루는 교육이다.⁴⁶⁾ 즉,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끼리 모여 어떤 방법으로 합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알게 하고, 통일의 기본 방향이나 방법 등 제반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방법과 절차 및 규범을 이해시킴으로써, 통일문제에 대한 국민 전체의 문제해결능력의 수준을 고양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민주시민교육은 일반적으로 통일과 관련없이도 학교교육의 중요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앞으로의 통일과정에서 남 북 주민의 서로 다른 입장이 충돌할 때,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는 민주시민으로서의 합리적인 문제해결방식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통일교육의 대상인 학습자는 장차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통일조국의 한사람으로서 살아갈 것이 기대됨으로, 통일교육은 학습자가 미래사회에서 성숙된 한사람의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민간으로 육성되도록 교수·학습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46) 최인화, 앞의 책, p.54 참조.

5) 미래지향적인 교육이어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은 미래의 통일국가가 당면한 제반 문제들을 창조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줌으로써 그들 스스로 통일조국의 미래를 구체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6) 북한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없애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즉, 반복교육이 아닌 북한의 실체를 파악하는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자료의 과감한 개방으로 북한을 관념화시키지 말고 현실의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통일교육은 북한에 대한 사실적이고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부정적인 북한의 모습뿐 아니라 긍정적인 면도 아울러 교육하는 개방교육으로의 전환이 가능할 것이다.

물론 우리 나라의 정치의 민주화, 사실의 개방화, 경제적 발전 및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신뢰등이 확산될 경우, 북한 관련자료의 완전개방은 불가피하겠지만, 그러는 중에도 통일교육에서 변화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 유지이다. 통일교육은 남북한 두 체제의 선택에 대한 교육내용을 다루므로 북한에 대한 틀에 박힌 사고를 없애는 교육을 하면서 동시에 자유민주체제의 우월성을 입증할 수 있는 비교자료를 모두 동원하여 교육매체를 사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객관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7) 통일교육은 학교의 모든 교육활동과 유기적 관련하에 지도되어야 하며 모든 사회교육기관도 일관된 통일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통일교육은 제도교육이나 사회교육장면에서 모든 교육활동과 다양한 학습장면을 통해 일관성있는 교육이 이루어짐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8) 마지막으로 위에서 제시한 통일교육의 새로운 길을 열어나가기 위해서는 통일 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각 지역에 통일교육센터가 설치되어야 한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능가할 수 없다는 공리는 통일교육의 장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현 시점에서 통일교육의 주된 임무를 떠맡고 있는 사람들은 교사들로, 교사 스스로가 통일교육의 전문인이라는 다짐아래 올바른 통일교육에 대한 신념을 갖고 보다 효율적인 통일교육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의 개발과 탐구학습 방법, 공동 토론 방법 등의 활용에 적극 힘써야 할 것이다. 통일교육이 흥미없고 주목받지 못하는데는 교사 자신의 이 분야에 대한 정보나 지식의 부족 말고도 통일문제 내지 북한관련의 전문서적이나 학습자료들에 대한 접근 기회의 제한에도 그 원인이 있다. 북한관련 간행물이나 통일문제 연구서들이 시중에 나와 있긴 하지만 그것들은 대부분 필자부족, 정보부족은 물론 정부의 통일정책 홍보위주로 되는 경우도 허다하여 일반독자들과는 거리가 멀다.⁴⁷⁾



47) 중앙일보(1990. 10. 24.), “북한관련 간행물은 일반독자와 거리가 멀다”. 참조.

IV. 결 론 : 요약 및 제언

1. 요약

장차 통일의 주역이 되거나 통일된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통일세대들의 올바른 통일관 확립은 통일 또는 통일된 미래사회에의 전망을 훨씬 밝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본연구는 이런 점에서 통일의식의 내면화를 위해 중요한 시기에 있는 국민학교 6학년 아동들을 대상으로 통일의식을 조사하였는바,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통일관

첫째로, 통일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는 자주 나눈다(4.5%)보다 전혀 나누지 않는다(33.1%)에 월등히 높게 응답하였다. 한겨레에 대한 인식올 묻는 질문에서는 남북한은 모두 한겨레이다에 전체 응답자의 73.1%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52.5%의 아동만이 북한과 미국의 운동경기를 할 경우 북한을 응원하겠다고 응답하였다. 남북분단의 원인으로서는 그 제1원인을 북한 김일성의 정권욕(64.2%)에 두고 있었다. 통일가능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83.5%라는 상당수의 아동들이 높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통일의 당위성에 대해서도 87.7%의 어린이가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이유에서 아동들은 한민족이기 때문에(39.7%)에 가장 많은 응답을 하였다.

둘째, 우리 나라 통일방안 인지도에서 아동들 대부분(64.6%)이 모르고 있었다. 통일의 주체에 대해 아동들은 남북사람 모두(91.7%)라고 답하였다.

셋째,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고 통일을 주도할 수 있기 위한 국내적 과제로 아동들은 꾸준한 남북대화 및 교류(51.5%)를, 통일의 장애요인으로는 김일성의 폐쇄정책(55.9%)을 제일 먼저 꼽았다. 주한 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는 62.5%의 어린이

가 주한 미군의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고, 공산국가와의 교류에서는 60.9%의 어린이가 교류에 대한 적극적 입장을 취하였다.

나. 북한관

북한사회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는 질문에서는 55.0%의 어린이가 북한 어린이 학교생활을 가장 궁금해 하였고, 북한동포애에 있어서는 전체 응답자의 69.5%가 호의적 반응을 보였다. 남북생활수준 비교에 있어서는 74.1%의 아동들이 우리가 잘 살 것이라고 하였으나, 군사력 비교에 있어서는 33.0%의 아동들만이 다시 전쟁이 일어나 서로 싸울 경우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답하였다. 북한의 공식명칭은 85.4%의 어린이가 모르거나 잘못 알고 있었다. 북한사회를 떠올릴 때는 제일 먼저 김일성·김정일(20.25%)을 연상하였다. 아동들의 북한에 대한 지식은 대부분 마스크(75.3%)에 의한 것임이 밝혀졌고 마스크에 의한 영향이 커서인지 55.4%의 어린이가 학교에 북한관련 자료가 없는 편이라고 답하였다.

다. 국가관

국가의 자유선택이 가능할 경우 전체 응답자의 24.6%의 아동만이 지금의 우리나라를 택하겠다고 응답하였으며, 제2의 6·25가 일어날 경우에는 그 보다는 약간 높지만 여전히 낮은 비율인 37.1%의 아동들이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고 하였다. 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에 있어서는 69.1%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이상의 조사연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면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점에 대한 유의를 절실히 요구한다.

첫째, 통일교육이 단순한 감정적 차원에서 행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아동들에게 통일정책에 대한 홍보의 지속과 아울러 정부의 통일노력을 객관적인 측면에서 이해시킬 수 있는 통일교육체계를 개발해야 한다. 그리하여 아동들이 통일에 대한 맹목적 환상에서 벗어나 통일문제에 실제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아동들이 북한에 대한 틀에 박힌 사고에서 벗어나 북한체제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추구할 수 있도록, 즉 올바른 북한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교육적 차원에서 북한 바로 알기 운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통일교육은 교사의 일방적인 주입식 방법에 의해 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실상을 공개, 그들 스스로 체제우월성을 비교 판단하게 하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아동들 가까이 있는 대중매체라고 판단되어지는 바, 대중매체와 학교교육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교육체제를 마련하여 우리 체제에 대한 우월성 확신과 나아가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줘야 할 것이다.

2. 제 언

우리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오늘을 사는 우리 민족에게 맡겨진 역사적 소명이다. 우리 민족은 수천년의 역사를 통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룩하고 그 속에서 함께 삶을 영위해 왔으며 온갖 시련과 역경 속에서도 민족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잃지 않고 민족본연의 모습을 지켜왔으나 타의에 의한 국토분단과 상이한 이념과 체제로 인하여 40년이라는 단절의 장기화 속에서 축적된 동족간의 반목, 불신, 적대관계, 민족이질화 등 남북으로 분단된 오늘의 현실은 민족공동체로서의 의식이 손상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민족공동체가 하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민족의 뿌리는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통일의 원동력으로 삼아 우리 민족 본래의 참모습인 동시에 또한 지향해야 할 목표이기도 한 민족공동체를 회복, 발전시킴으로써 민족구성원 모두가 함께 잘사는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하루 속히 열어 나가야 할 것이다.

평화통일은 되는 것(Werden)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Machen)이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야 할 민족사적 과제이다. 또한 통일은 내

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고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시대를 사는 우리 세대의 책임이다. 왜냐하면 빠른 시기에 평화통일의 기반이라도 조성하여 다음 세대에게 넘겨주지 못한다면 우리의 통일은 더욱 멀어지고 민족사의 단절위험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민족의 자존 자체가 위협을 받기 때문이다.

민족의식과 통일의지는 새 세대에게서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교체 과정에서 부단히 이어나가고 국민정신 교육을 통하여 복돋아야 할 현실적 과제이다. 민족의 신뢰가 형성되고 동질성이 회복된다면 정치체제적 통일은 이룩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민족의 내면적 통일은 이룩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학교에서의 통일교육은 실명위주의 비판교육과, 북한과 공산주의에 대한 부정적 적대감정만을 강조하는 반공교육에 치우쳐 민족의 동질성 회복보다는 이질감을 심화시키고, 민족의 통일보다는 남북의 분단을 고착화시키는 교육이었다. 또한 교사의 통일 지도관 결여와 추상적 지도로 체계적인 통일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리하여 지금까지의 통일교육은 냉전시대의 분단교육 형태를 극복하지 못한 채 폐쇄적이고 수세적인 안보논리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둔 소극적인 통일교육에 그침으로써 학생들의 올바른 통일관 및 확고한 통일의지 나아가 민족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평화와 화해시대에서의 새로운 통일교육은 동태적인 통일환경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고 동시에 불신과 대립의 냉전구조속에서 반세기를 살아온 남북한 나아가 해외동포들의 마음의 장벽을 제거하여 한민족 전체의 공동번영과 행복을 꾀할 수 있는 생동감 있고 탄력성이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새로이 다가올 통일국가에서 책임있는 민주시민적 자질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자극하고 고무하는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이며 체계성을 갖춘 교육이 되어야 한다.

參 考 文 獻

1. 韓 國 文 獻

〈單行本〉

- 박준희(1985), “통일 교육의 필요성”, 「통일」, (민족통일중앙협의회).
- 박용현(1988), “통일주역의 교육은 어떻게 하나?”, 「민족지성」 통권 37호, (민족지성사).
- 백종익(1992), “통일교육의 과제와 재정립 방향탐색”, 「통일문제연구」 제4권 1호, (통일원).
- 신상조(1992), “학교 통일교육의 새로운 과제”, 「교육월보」 제11권 13호, (교육부).
- 신용철(1990), “독일통일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통일문제연구」 제2권 4호, (통일원).
- _____ (1992), “독일의 통일교육과 문화 및 교육의 교류”, 「교육월보」 제11권 13호, (교육부).
- 안병준(1991), “국제환경의 변화와 통일교육의 과제”, 「교육월보」 제10권 11호,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1988), “통일안보교육 지도자료 :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 통일원(1992), “화해협력시대의 통일교육 기본방향”.
- 고대만(1990), “국민학교 도덕교과서 통일·안보영역의 내용분석”, 「도덕·국민윤리과 교육」 제1권, (한국 도덕·국민윤리학회).
- 윤성한(1990), “성공적인 통일·안보교육을 위한 제언”, 「새교육」 통권429호, (한국교원단체연합회).

- 한만길(1989), “분단상황과 통일교육의 방향”, 「새교육」 통권411호, (대한교육연합회)
- 김신일(1991), “통일로 가는 교육의 방향”, 「새교육」 통권 435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 김장수(1992), “통일교육을 위한 수업방법 : VTR영상자료활용중심으로”, 「교육월보」 제11권 13호, (교육부).
- 김태완(1992), “통일에 대비하는 교육”, 「교육월보」, (교육부).
- _____ (1992), “문답식으로 풀어본 통일·안보교육”, 「교육월보」, (교육부).
- 김선양(1991), “통일교육의 지도”, 「교육관리기술」 제22권 1호, (한국교육출판).
- 김성필(1991), “북한현실의 통일안보교육시각 형성”, 「교육관리기술」 제22권 1호, (한국교육출판).
- 정세구(1992), “올바른 통일관 정립을 위한 교육”, 「교육월보」 제11권 13호, (교육부).
- 추병완(1992), “학교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새교육」 통권 452호, (한국교육신문사).
- 최인화(1991), “현행 통일안보교육의 현주소와 전개방향”,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 (통일원).
- _____ (1991),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통일교육의 전개방향”, 「통일문제연구」 제3권 1호, (통일원).
- 한명희(1992), “6차 교육과정에서의 통일교육”, 「교육월보」 제11권 13호, (교육부).
- 류봉호(1970), “통일에 대비한 교육추진의 절실성”, 「새교육」 통권 434호, (한국교육신문사).
- 문용린(1989), “왜 반공교육이 아닌 통일교육인가”, 「신동아」 제32권 4호, (동아일보사).

- _____ (1990), “공산권 개방과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교육관리기술」 제 21권 9호, (한국교육출판).
- 교육정책자문회의(1990),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교육방안」.
- 국토통일원(1990), 「민주통일론」.
- _____ (1988), 「민주통일론」.
- _____ (1988), 「통일논의 자료집 I」.
-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1990), 「분단국의 통일문제」.
- _____ (1989), 「민주통일론(통일문제)」.
- _____ (1989), 「민주통일론(북한실태)」.
- _____ (1990), 「통일문답」.
- _____ (1989), 「통일문제 해설」.
- _____ (1988), 「한국의 통일정책」.
- 김태환(1989. 1.), “통일과 통일국가의 미래상”, 「북한」, 국토통일원
- 문교부(1988), 「국민학교 교육과정 해설」.
- _____ (1989. 3),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3-1」.
- _____ (1989. 9),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3-2」.
- _____ (1990. 3),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4-1」.
- _____ (1990. 9),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4-2」.
- _____ (1990. 3),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5-1」.
- _____ (1990. 9),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5-2」.
- _____ (1990. 3),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6-1」.
- _____ (1990. 9),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6-2」.
- _____ (1989. 3), 「도덕교과서 3-1」.
- _____ (1989. 9), 「도덕교과서 3-2」.
- _____ (1990. 3), 「도덕교과서 4-1」.

- _____ (1990. 9), 「도덕교과서 4-2」.
- _____ (1990. 3), 「도덕교과서 5-1」.
- _____ (1990. 9), 「도덕교과서 5-2」.
- _____ (1990. 3), 「도덕교과서 6-1」.
- _____ (1990. 9), 「도덕교과서 6-2」.
- _____ (1989. 3), 「생활의 길잡이 3-1」.
- 문교부(1989. 9), 「생활의 길잡이 3-2」.
- _____ (1990. 3), 「생활의 길잡이 4-1」.
- _____ (1990. 9), 「생활의 길잡이 4-2」.
- _____ (1990. 3), 「생활의 길잡이 5-1」.
- _____ (1990. 9), 「생활의 길잡이 5-2」.
- _____ (1990. 3), 「생활의 길잡이 6-1」.
- _____ (1990. 9), 「생활의 길잡이 6-2」.
- _____ (1962), 「국민학교 교사용 지도서, 도덕」.
- _____ (1989), 「통일·안보교육 지침서」.
- _____ (1989), 「통일·안보교육 지도자료」.
- 민족지성사(1989. 4), 「민족지성」.
- 이홍구(1988. 5), “탈 냉전시대의 통일논의”, 「월간중앙」, 중앙일보사.
- 자유평론사(1988), 「분단현실과 통일논의」.
- 한국교육개발원(1988), 「통일교육의 새로운 전개방향」, 서울:대광문화사.
- _____ (1988), 「학교 통일의 새로운 전개방향」, 서울:대광문화사.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1990. 4), 「격동기의 통일·안보교육」, 한국교육신문사.
- 한승조(1985. 8), “남북한 이질화의 해소방안”, 국회보 제226호.

〈論 文〉

- 손우정(1989), “국민학교 도덕교과서에 나타난 통일교육의 비판적 분석”,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 최성환(1984), “아동기의 통일안보교육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의식 및 교육실태
조사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서울:연세대 교육대학원).
- 한정도(1990), “90년대 통일교육의 기본방향”, 석사학위논문, (전남:공주대 교육
대학원).
- 김재현(1991), “국민학교 통일안보 교육의 새로운 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
문, (서울:경희대 교육대학원).
- 홍순식(1989), “국민학교 통일교육에 관한 연구:효율적 학습지도 방안 모색과 관
련하여”, 석사학위논문, (서울:한양대 교육대학원).
- 박순일(1984), “대북한 교육의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인천
대(교육대학원).
- 김치홍(1983), “제주도 중·고등학생의 통일안보 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
논문, (제주:제주대 교육대학원).
- 김부웅(1988), “부녀자의 안보·통일의식에 관한 조사연구”, 석사학위논문, (경
남:경남대 교육대학원).
- 신순길(1986), “통일에 대한 인식태도와 통일교육의 개선방향 연구”, 석사학위논
문, (경기:인천대 교육대학원).
- 고성준(1980), “재일제주동포의 통일안보의식에 관한 역설적 연구”, 「제주대학 논
문집」 제11집.
- 김항원(1981), “제주도 주민의 반공의식 조사연구”, 「제주대학논문집(사회과학편)」
제13집.
- 유경숙(1985), “통일교육의 변천과 문제점”,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상우(1987), “통일한국의 모색”, (서울:박영사).
- 김용승(1990), “대학인의 통일의식과 통일문제인식의 새방향”, 「대학생통일논문집」

제9권, (통일원).

임병춘 (1991), “전환기 통일의식과 통일문제인식의 새방향”, 「대학생통일논문집」

제10권, (통일원).

서창배 (1990), “사회문화교류를 통한 한민족 공동체 형성방안 모색”, 「대학생통일
논문집」 제9권, (통일원).

2. 西洋論文

〈單行本〉

Platon. (), The Republic and J. J Rousseau, Emile.

Robert D. Hess & Judith V. Torney (1967), “The development of political attitudes in
children”, (Chicago : Aldine publishing Company).

David Easton and Robert D. Hess (1962), “The Child’s Political World”, Mid-
west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I.



<Summary>

A Study on Unification Consciousness of
Primary-School Children in Cheju-do.

— In reference to the new direction of the education on unification —

Kim Hi

National Ethics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Ko Seong-Joon

Today a peaceful unification of our country (Korea) is a historical mission that is undertaken to our nation, but it can be realized when we play an important and active role.

The reform of a socialist state, the limitative change of north korea and the dramatic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y require that we should have a new recognition of unification problems in the korean peninsula. The stream of the world makes us realize that the unification of korea has to be focused on a national integration promoting the senes of national homogeneity, not a simple unity between north and South. So far, we has emphasized anti-communism and ignored a national integration. But with the conversion of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3.

recognition about these problems, the change of direction for our unification is inevitable. During the tragic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reality of the Korean peninsula accumulated antagonism, distrust, enmity and national heterogeneity between the two, and a national community got damaged. Here, we must recognize that we made a big mistake in our education on unification.

Fortunately, there is a foundation that a national community can be united and the roof of a nation is still alive. So we should build the aims of the unification again by using this power and recover a national community and accomplish a common prosperity.

However, national consciousness and power for unification won't happen of itself. They can be achieved through the education continuously. Therefore, the education on unification has to be improved in its subject matters and method in order to be the education for a national integration. When we remember that the unification education for the recovery of national homogeneity that the German carried out continuously have an important effect upon the unification of Germany, the new direction the unification education for the formation of a national community can be a foundation.

6. 북한과 미국이 운동경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응원하시겠습니까?
- 1) 북 한
 - 2) 미 국
 - 3) 둘 다 똑같이 응원하겠다.
 - 4) 둘 다 응원하지 않겠다.
7. 여러분은 우리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된 원인이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 1) 한국 지도자의 책임
 - 2) 민족내부의 분열
 - 3) 미국의 간섭
 - 4) 미국·소련의 욕심
 - 5) 북한 김일성의 권력에 대한 욕심
8. 여러분은 남북한 통일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머지않아 이루어질 것이다.
 - 2) 노력하면 언젠가 이루어질 것이다.
 - 3) 조금 어려울 것이다.
 - 4)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 5) 잘 모르겠다.
9. 여러분은 평소 통일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통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 2) 통일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3) 통일은 되어도 좋고 안되어도 좋다.
 - 4) 통일이 안되었으면 좋겠다.
 - 5) 생각해본 적이 없다.
10. 만약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다음 중 어느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이산 가족의 고통을 없애기 위하여
 - 2) 한 민족이기 때문에
 - 3) 우리 민족이 더 잘 살기 위하여
 - 4)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 5) 기타
11. 우리 나라의 통일 방안인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까?
- 1) 잘 알고 있다.
 - 2) 조금 알고 있다.
 - 3) 거의 모르고 있다.
 - 4) 전혀 모르고 있다.

12. 여러분은 통일을 위한 노력을 누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1) 남한 사람들 2) 북한 사람들 3) 남·북 사람 모두
 4) 남한 지도자 5) 북한 지도자 6) 미국이나 옛 소련(독립 국가 연합)
13. 여러분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국민 단결 2) 꾸준한 남북대화 및 교류
 3) 북한사회에 대한 이해 4) 나라의 힘 기르기 5) 기타
14.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통일이 안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1) 김일성이 북한을 개방하지 않아서
 2) 남북한이 서로 믿지 않아서
 3) 민주주의(남한사회)와 공산주의(북한사회)가 서로 자기네 것이 좋다고 우겨서
 4) 남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해서
 5) 북한 정부의 노력이 부족해서
 6) 미군이 남한에 머물러 있어서
 7) 주변 강대국이 방해를 해서
15. 우리 나라에 머물러 있는 미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도 통일이 될 때까지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
 2)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통일이 안되어도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
 3) 우리 스스로 나라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있든 없든 자기 나라로 돌려 보내야 한다.
 4) 잘 모르겠다.
16. 요즘 동구 여러 나라, 중국, 독립국가연합(옛 소련) 등 활발해지고 있는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공산국가기기 때문에 교류를 중단해야 한다.
 2) 통일을 위해 많이 교류해야 한다.
 3) 믿을 수 없으니 조금만 교류한다.
 4) 잘 모르겠다.

17. 여러분은 동독과 서독이 통일된 것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 1) 우리 나라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이다.
 - 2) 독일이 부럽다.
 - 3) 독일 민족이 노력해서 이루어졌다.
 - 4) 어찌다 보니 통일이 되었다.
 - 5) 통일된 것에 대해 후회하고 있을 것이다.
18. 여러분이 북한사회에 대해 가장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 1) 북한 주민의 생활
 - 2) 북한 어린이의 학교 생활
 - 3) 김일성·김정일의 생활
 - 4) 북한 군대의 힘의 크기
 - 5) 북한 정치가들의 생활
 - 6) 기타
19. 여러분이 북한 어린이를 만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같은 동포로 생각하고 아주 잘 대해 주겠다.
 - 2)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하겠다.
 - 3) 외국인 같은 기분으로 대하겠다.
 - 4) 공산주의 인간임으로 경계하겠다.
 - 5) 대화를 전혀 하지 않겠다.
20. 우리 나라와 북한 주민들의 생활 정도를 비교해 볼때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우리가 아주 잘 살 것이다.
 - 2) 우리가 약간 잘 살 것이다.
 - 3) 서로 비슷하게 살 것이다.
 - 4) 북한이 조금 더 잘 살 것이다.
 - 5) 북한이 아주 잘 살 것이다.
21. 만약 6·25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나서 우리 나라와 북한이 싸우게 된다면 여러분은 우리 나라가 어떠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큰 차이로 이길 것이다.
 - 2) 조금 차이나게 이길 것이다.
 - 3) 서로 비슷할 것이다.
 - 4) 조금 차이로 이길 것이다.
 - 5) 큰 차이로 질 것이다.
22. '88 서울 올림픽을 우리 나라에서 개최한 것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북한을 누르고 우리 나라가 올림픽을 개최하여 기쁘다.
 - 2) 북한과 같이 올림픽을 개최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다.
 - 3) 북한이 올림픽을 개최했어야 했다.
 - 4) 잘 모르겠다.
23. 우리 나라(남한)의 공식 이름은 대한민국입니다. 북한의 공식이름은 무엇입니까?
- 1)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 2) 조선 인민 민주주의 공화국
 - 3) 조선 인민 공화국
24. 여러분이 '북한'이라는 말을 듣거나 보았을 때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만 순서대로 적어 주십시오.
- 1)
 - 2)
25. 여러분은 북한에 대한 지식(정보)을 주로 무엇을 통해서 얻고 있습니까?
- 1) 학교 선생님 2) 가족, 친지 3) 텔레비전, 라디오
 - 4) 신문 5) 어린이 잡지 6) 기타
26. 북한이나 공산 국가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자료들이 우리 학교에는 얼마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1) 대단히 많다 2) 많이 있는 편이다. 3) 보통이다.
 - 4) 조금 있다. 5) 거의 없다.
27. 여러분이 만약 국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나라에 살고 싶습니까?
- 1) 지금처럼 우리 나라
 - 2) 우리 나라보다 잘 사는 나라
 - 3) 우리 나라보다 잘 살진 않지만 민족이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
 - 4) 우리 나라보다 잘 살고 민족도 둘로 나누어지지 않은 나라
28. 여러분이 어른이 되었을 때 만약 6·25같은 전쟁이 다시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기꺼이 군인이 되어 싸우겠다.
 - 2)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

- 3) 안전한 곳으로 가서 살겠다.
4) 그때 가봐서 행동하겠다.
29. 여러분은 북한 어린이들에게 민주주의(남한사회)가 공산주의(북한사회)보다 더 좋다는 것을 자신있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1) 자신있게 할 수 있다. 2) 조금 할 수 있다.
3) 잘 모르겠다. 4) 조금 자신이 없다.
5) 전혀 자신이 없다.
30. 여러분은 지금 우리 나라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자원부족 2) 인구 증가 3) 환경 오염
4) 여러가지 범죄 발생 5)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 6) 기타

수고하셨습니다.

